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랑하고 존경하는 외할아버지

故 김순철 바오로 님께 바칩니다.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선 아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상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선 아

이선아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_____이 봉 주_____ (인)

부위원장 _____Joan P. Yoo_____ (인)

위 원 _____강 상 경_____ (인)

국문초록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선 아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모의 내적·외적 대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50%에 육박함에도 이들의 자녀양육부담에 대한 제도적·의식적 지원이 부족하여 취업모의 경력단절현상 및 출산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연구배경으로 한 것이다.

한편 만 1-3세의 초기 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이 역동적으로 급격히 나타나므로 양육자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한편 양육스트레스 또한 커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과정에서 대처자원의 역할을 논하고 사회복지 개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셋째,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로 설정되었다.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이

용하여 총 502명의 취업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최종적으로 415명이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4단계를 살펴보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사회적 지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존재하며,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는 점, 둘째,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초기 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의 정신건강적 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취약집단에 대해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취업모의 대처자원을 내적·외적 차원에서 탐색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국 규모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시킨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로는 첫째,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양육부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지원정책이 모의 정서적·심리적 측면까지 포괄해야 함을 강조한 점, 둘째,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초기 유아기의 발달특성 및 그에 따른 양육지식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린 점,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취업모의 내적·외적 대처자원을 살펴봄으로써 복지적 개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점,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존재함을 밝혀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알린 점 등이 있다.

주요어 : 취업모,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학 번 : 2009-20161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문제 ····· 10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1
제 1 절 스트레스 과정 이론 ····· 11
1. 스트레스 원(原): 양육스트레스 ····· 12
2. 매개요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 13
3. 스트레스 결과: 우울 ····· 15
제 2 절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 16
1. 양육스트레스 ····· 16
2. 우울 ····· 19
3.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 22
제 3 절 자아존중감 ····· 26
제 4 절 사회적 지지 ····· 29
제 5 절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관련 기타 요인 ····· 32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 종교유무 ····· 32
2. 가족 관련 요인: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 ····· 34
3. 직업 관련 요인: 직업종류, 근무시간, 근무조건의 융통성, 직업만족도 ····· 35
4. 대리양육 관련 요인: 대리양육방식, 대리양육 안정성, 대리양육만족도 ····· 37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39
제 1 절 연구모형 ····· 39
제 2 절 연구가설 ····· 40

제 4 장 연구방법 ····· 41
제 1 절 연구자료 ····· 41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43
1.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 43
2. 종속변수: 우울 ····· 44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 45
4. 통제변수 ····· 48
제 3 절 분석방법 ····· 52

제 5 장 분석결과 ····· 54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4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4
2.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 56
3. 연구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 ····· 57
4. 연구대상자의 대리양육 관련 특성 ····· 58
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 60
제 3 절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 62
제 4 절 가설 검증 ····· 65
1.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65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68
3.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73
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 ····· 78

제 6 장 결론 ····· 84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84
제 2 절 논의 ····· 88
1.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우울 ····· 88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90
3.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92
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 94
제 3 절 연구의 함의 ····· 97

1. 이론적 함의 ····· 97
2. 실천적 함의 ····· 99
제 4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04

참고문헌 ····· 108
[부록 1] 설문지 ····· 127
[부록 2] K6 각 문항의 측정내용 및 기존 우울 척도와의 비교 ····· 137
[부록 3]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 142
Abstract ····· 144

표 목차

【표 1】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구성 ····· 43
【표 2】 우울 척도의 문항 구성 ····· 45
【표 3】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구성 ····· 46
【표 4】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 47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5
【표 6】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① -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양육참여 ····· 57
【표 7】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② -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 ····· 57
【표 8】 연구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 ····· 58
【표 9】 연구대상자의 대리양육 관련 특성 ····· 59
【표 10】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 61
【표 11】 변수들 간 상관관계 ····· 64
【표 12】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67
【표 13】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72
【표 14】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73
【표 15】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 77
【표 16】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78
【표 17】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개별모형 비교 ····· 79
【표 18】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통합모형 ····· 82
【표 19】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83
【표 20】 연구결과 요약 ····· 87

[부록 2]【표 1】K6 각 문항의 측정내용 및 기존 우울 척도와의 비교 ···· 138
[부록 3]【표 2】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142
[부록 3]【표 3】사회적 지지와 취업모의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143

그림 목차

【그림 1】연구모형 ····· 3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통계청 조사 결과 15세 이상 여성의 49.5%가 취업 중이다(통계청, 2013). 이는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있음을 의미한다. 기혼여성의 취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44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5년, 기혼여성의 48.6%가 취업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고(보건복지부, 2005),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43.6%를 차지함으로써 42.3%를 기록한 외벌이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a).

이처럼 기혼취업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특히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육아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30대층의 44.4%가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2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 기혼취업여성의 50.7%가 '상당히 어렵다' 혹은 '어렵다'라고 답한 것(한국여성개발원, 2002)과 동일한 문제를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기혼취업여성의 이중역할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일과 가족 양립에 따른 역할갈등,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경신, 김오남, 1994; 김경희, 이복순,

2009; 손수민, 2012; 안선자, 이정우, 1996; 윤지숙, 2002; 이윤석, 2010; 장미나, 한경혜, 2011; Aryee, Srinivas, & Tran, 2005).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기혼취업여성의 이중역할부담은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도 가정에서 돌봄과 내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기혼취업여성은 역할과중으로 인해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중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업모의 역할갈등에 대한 안선영(1987)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모가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자녀양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윤지숙(2002)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56.1%가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기혼취업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전업주부보다 적은 현실(보건복지부, 2009)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그 자체로도 심각성을 띠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고려할 때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된다. 양육스트레스는 특히 모의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모의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지현, 2005; 문진하, 2009; 박해미, 1994; 이윤주, 2012; 이정윤, 장미경, 2008; Danielle & Abigail, 2011; Gove & Hughes, 1979; Shin & Kim, 2010; Susan, Richard, Philip, & Ina, 2001; Weitlauf, Vehorn, Taylor, & Warren, 2014). 모의 우울은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정생활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정지연, 2008). 우울한 모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취하거나 자녀를 방임하는 등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밝혀져(고유빈, 하은혜, 2010; 김경은, 2011; 이정윤, 장미경, 2009; Farmer & Lee, 2011) 사회복지학에서 주요 관심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가 모의 우울을 초래함으로써 자녀발달,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는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탐색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김혜진, 2004; 손수민, 2012)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은 매일 반복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에 적절히 적응하여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처자원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나, 특히 취업모는 가사와 육아, 그리고 직장업무를 모두 병행해야 하는 역할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전업모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업모의 경우 오로지 육아에 전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겪는(Gore & Mangione, 1983; Kessler & McRae, 1982) 반면, 취업모는 다양한 역할이 중첩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도 가사 및 육아 문제는 여성이 도맡아야 한다는 유교적 문화가 팽배한 국내 상황(윤지숙, 2002)에 비추어 볼 때, 취업모의 역할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현상(보건복지부, 2009)이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에 입각하여, 취업모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요인(要因)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을 초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활용 가능한 대처자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 작용하는 내적·외적 자원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스트레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매개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자원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서, 많은 선행연구(김성범, 김진숙, 2011; 이현주, 강상경, 2009; Lee, Joo, & Choi, 2013; Moksnes, Moljord, Espnes, & Byrne, 2010)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받는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뜻하며,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민정, 2011; Chronister, Chou, & Liao, 2013; Manuel, Martinson, Bledsoe-Mansori, & Bellamy, 2012). 즉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아존중감이 하락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함으로써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또는 사회적 지지를 상승시키는 개입을 통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초래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에서 개인의 주요 내적·외적 자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적용된 연구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정지연(2008)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5~7세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자기지각,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있으나, 자기지각과 사회적 지지를 양육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었을 뿐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한편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다룬 국내연구는 대체적으로 그 대상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모에 집중되어 있다(권정혜, 1996; 김지현, 2005; 박해미, 1994).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모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모가 체력적·시간적으로 소진되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혜성, 2001;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만 1세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모, 혹은 만 3세 이상의 유아기 및 학령전기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1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까지의 초기 유아기 자녀를 둔 모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로 제한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3세의 초기 유아기는 역동적인 발달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기나 학령전기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숙, 문혁준, 2005; 박영숙, Kanzaki, 박연환, 김윤미, 2009;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눕거나 앉는 정도로 신체활동이 제한된 영아기와는 달리 초기 유아기에는 혼자 서거나 걷고 뛰는 등 활동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박현선, 2012), 안전의식이 미처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과 부상위험이 높아 양육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배변훈련과 언어습득이 시작되므로(박현선, 2012) 양육자가 영아기에 비해 다방면으로 더 많은 관심과 양육지식을 필요로 하며,

결과적으로 양육부담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Kutzner(1985; Gross, Rocissano, & Roncoli, 198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모는 자녀가 영아기일 때보다 자신의 양육방식 및 모 역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유아는 아직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학령전기의 유아를 돌보는 것에 비해 양육자의 고충이 크다(김영주, 송연숙, 2007). 따라서 가사와 육아, 직장 업무 등을 책임지며 역할과중을 경험하는 취업모로서는 초기 유아기의 자녀를 돌보는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기 쉬운 위험군으로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만 1-3세의 초기 유아기는 신체적·언어적 발달과 함께 인지적·정서적 발달 또한 급격히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양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동배, 권중돈, 2010).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1]에 따르면 만 1-3세의 유아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신뢰감과 자율성을 획득한다(Erikson, 1959; 김동배, 권중돈,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양육자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아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훈육을 병행해야 한다(신의진, 2012). 또한 태어나서부터 만 3세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두뇌 발달과 안정적 애착관계의 형성이 향후 전인적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양육자는 이 시기의 영유아에게 애정을 가지고 꾸준한 신체 접촉과 오감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1) Erikson(1959)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자아의 발달과정을 총 8단계로 구분하였다. Erikson(1959)에 따르면 인간은 각 발달단계마다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자아특질을 획득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정적 자아특질을 가지게 된다. 만 0-2세에 해당하는 '영아기' 단계에서는 강점으로는 신뢰감, 약점으로는 불신감을 가지게 되며, 만 2-4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단계에서는 강점으로는 자율성, 약점으로는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Erikson, 1959; 김동배, 권중돈, 201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만 1-3세의 초기 유아기는 에릭슨의 '영아기'와 '유아기'에 걸쳐있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KBS 〈첨단보고 뇌과학〉 제작팀, 2012).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모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에 시달릴 경우, 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안지영,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만 1-3세의 자녀를 둔 모에 집중하기로 한다.

셋째, 이처럼 만 1-3세의 시기가 모와 자녀 모두에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취업모가 이용할 수 있는 대리양육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공적 자원의 경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는 대체로 개인 대리양육자나 어린이집에 의존하게 되는데(여성가족부, 2005)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혹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머니투데이뉴스, 2013; 서울경제, 2013). 한편 민간 자원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0% 이상을 차지(이한석, 2012)할 정도로 그 수가 많으나 표준보육과정[2)]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초기 유아기에 요구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방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연정희, 2011; 임준구, 2012; 한순화, 2009). 또한 위생·청결 및 안전상태의 수준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베이비뉴스, 2011),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소수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몰리고 있어(임준구, 2012)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대리양육에 자녀를 맡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성옥, 1993; 배경운,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

2) 표준보육과정은 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한국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의뢰 하에 만 0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보육·교육과정이다(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이는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표준화된 과정이며,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총 6개 영역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및 교육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경감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연령이 만 1세 미만인 모, 즉 출산 1년 이내의 모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살펴봄에 있어 적합한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한다. 출산 1년 이내의 모가 경험하는 우울은 모 역할 획득으로 인한 인지적·심리적 적응문제 및 호르몬 변화로 인한 생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산후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울은 출산 후 중·단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모됨의 태도, 자녀의 기질 및 성향, 모와 자녀의 신체적 건강상태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배정이, 1996), 그 요인(要因)을 다룸에 있어 취업모의 역할과중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만 1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도록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입증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한다.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 중인 「한국아동패널」은 신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아동의 발달사항을 추적하고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부모, 가정, 지역사회 차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취업모 자녀의 연령을 만 1세 이상, 만 3세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한국아동패널」자료 중 3차년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특정 병원이나 대리양육기관을 이용 중인 모를 대상으로 소규모 표본을 선정한 경우(김지현, 2005; 박성옥, 1993; 박해미, 1994; 백경임, 강희경, 1995; 이윤주, 2012; 이정윤, 장미경, 2008; 전영자, 1992)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국 규모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취업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양육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을 경감하는 데 효과적인 자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대처자원으로 내적 차원에서는 자아존중감, 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다. 이로써 향후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함의를 둔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가지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여하는 내적·외적 자원을 탐색하고 그 매개효과를 입증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만 1-3세의 초기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전국 규모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높인다는 점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내적·외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트레스 과정 이론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은 Pearlin, Menaghan, Lieberman, and Mullan(1981)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서 스트레스를 단일현상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촉발되고 진행되어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귀결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크게 '스트레스 원(原)(Stressor, Source of stress)', '매개요인(Medicator, Mediating resource)', '스트레스 결과(Outcome, Manifestation of stress)'라는 3가지 주요요소로 구성된다(Pearlin et al., 1981). 첫째, 스트레스 원(原)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요소로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균형 및 안녕상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둘째, 매개요인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으로서, 스트레스 원(原)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한다. Pearlin et al.(1981)은 이러한 매개요인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매개효과와 함께 조절효과도 가진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결과는 스트레스 원(原)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로서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지만,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주로 우울이나 좌절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변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Pearlin, 1989).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을 초래한다는 가정 하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서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이 연구의 이론적 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인들이 스

트레스 과정 이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1. 스트레스 원(原): 양육스트레스

Pearlin et al.(1981)은 단발적인 부정적 생활사건과 만성적 긴장(chronic strain), 그리고 자아개념의 붕괴가 스트레스 원(原)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부정적 사건이 만성적 긴장으로 이어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건 없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만성적 긴장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Pearlin et al.(1981)은 특히 만성적 긴장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 개인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만성적 긴장의 대표적인 예로 역할 긴장(role strain)을 꼽았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과 직장 양쪽에서 주어진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겪게 되는 역할과다 혹은 역할갈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스트레스 원(原)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은 끊임없이 모의 관심과 노력을 요하므로 양육스트레스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만성적 역할긴장으로 대표되는 스트레스 원(原)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Pearlin et al.(1981)은 자아개념의 붕괴 역시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만성적 긴장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원(原)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자아개념의 붕괴는 다른 스트레스 원(原)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스트레스 결과를 초래한다(Pearlin et al., 1981). 부정적 사건이나 만성적 긴장이 자아개념을 약화시켜 스트레스

결과를 유발할 수 있고, 혹은 역방향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이 상실됨으로써 개인이 만성적 긴장상태에 놓여 스트레스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이 단독으로 스트레스 원(原)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 이 때 Pearlin et al.(1981)은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핵심요소로 보았으며,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하락이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 원(原)으로 다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매개요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개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행동양식이나 인지적·사회적 자원을 동원한다(Pearlin, 1989).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문제해결방식 및 대처자원을 매개요인이라 일컫고, 주요 매개요인으로 대처(coping)와 사회적 지지를 꼽는다(Pearlin et al., 1981).

먼저, 대처(coping)란 개인이 자신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의 속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문제해결방식을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Pearlin et al., 1981). Pearlin et al.(1981)은 대처(coping)를 사회적으로 학습된 일반적인 스트레스 적응방식으로 규정하였고 개인 고유의 성격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심리적 자원은 대처(coping)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Pearlin and Schooler(1978)는 개인이 자신에게 내재된 심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특정 상황을 스트레스 원(原)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원(原)이 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한다고 설명

하였다.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대처(coping)의 일환으로 작용하며, 특히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자기폄하 등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을 대처(coping)의 자원으로 판단하였고, 내적 차원의 매개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김성범, 김진숙, 2011; 이현주, 강상경, 2009; Lee et al., 2013; Moksnes et al., 2010)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것이 우울로 연결된다고 밝혀졌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지원을 뜻한다.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사회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충분한 원조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어렵고 이러한 결핍을 지각함으로써 우울이 심화된다(김민정, 2011; Chronister et al., 2013; Manuel et al., 2012).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변수로 작용하며,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대표적 매개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적 차원의 매개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Pearlin et al.(1981)은 이러한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매개요인들이 스트레스 과정을 설명하는 매개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스트레스 원(原)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취업모의 우울을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에 개입하는 기존의 정책적 범위를 확장하여, 양육스트레스 과정에서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요인들에도 추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매개요인의 조절효과가 아닌 매개효과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 매개요인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이며, 스트레스 원(原)이 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 외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적용하고 이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3. 스트레스 결과: 우울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신체적 · 인지적 · 정서적 ·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우울을 사용한다(Pearlin et al., 1981). 특히 우울은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긴장이나 갈등, 실패감 등으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가장 적합한 스트레스 결과 증상으로 판단된다(Pearlin et al., 1981).

본 연구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종속변수로서 우울을 다룬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과정 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매우 적합다고 사료된다.

제 2 절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1. 양육스트레스

Lazarus and Folkman(1984)은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과 능력을 벗어난 수준에서 안녕상태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과 소진을 경험한다. 특히 육아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끝없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므로 이전까지 자기 자신 혹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생활양식이 전반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2).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아기를 직접 양육하는 시간이 길며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심리적 어려움을 훨씬 크게 느낀다(Rubin, 1983).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하던 주부로서의 역할에 모(母)의 역할이 추가되면서 역할과부하를 경험하며(Ravicz, 1998),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까지 중첩되어 역할갈등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는 여성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요구되는 업무가 스스로 적절히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상적 스트레스라는 개념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혼이나 가족의 죽음 등 부정적 생활사건에서 찾았으나,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1997; Holahan, Holahan, & Belk, 1984). 즉 특정한 사건 없이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지루함

이나 좌절, 당황스러움 등의 감정이 축적되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 특히 양육자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유아기 자녀와의 관계는 가정에서 매순간 반복됨으로써 기쁨이나 행복감 등 긍정적인 정서 외에도 짜증, 불안, 따분함 등 부정적 감정을 촉발시켜 양육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기초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혼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 자녀양육 관련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이광주, 198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역할부담 가중, 그리고 육아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심리적 고통이 축적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김기현, 강희경(1997)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 역할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정신적 고통과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하였고, 안지영(2000)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모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서로 정의하였다. 이정순(2003)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서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라 하였다. 국외 연구자들로는 Abidin(1990)이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라고 하였고, Crnic and Greenberg(1990)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수반되는 부담감이나 불편함, 혹은 긴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육아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부정적 정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로서의 양육스트레스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모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속적인 부담감, 불안, 긴장 등을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정의한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리진(1999),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1999a), 허은경(2004)이 취업모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전업주부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박삼수(2004) 또한 취업모는 자신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 및 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양육 관련 요인을 꼽았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혜진(2004)과 박해미(1994)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보다 높다고 나타났고, 김혜성(2001)은 양육스트레스는 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하여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취업모의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와 전업모의 자녀양육 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집단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성격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논하기보다 취업모, 전업모 각각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요인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기혼취업여성이 직장업무와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혼취업여성의 이러한 고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5~29세에 69.8%로 가장 높았다가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 54.6%로 크게 하락하고 30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M자 곡선을 그리는 것(통계청, 2011b)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다중역할부담으로 인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우울

우울은 기분이 저조한 상태를 뜻하며, Beach, Sandeen, and O'Leary(1990)에 따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인 감정으로 "정신질환에 있어 감기와도 같이 흔한(the common cold of mental illness)"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우울증상을 가볍게 여겨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자칫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양재곤, 1982).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에 따르면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으로 우울한 기분,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식욕 혹은 체중의 감소나 증가, 불면증이나 수면과다,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활력 상실,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사고력 및 집중력 감소,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꼽을 수 있다(이근후 외, 1995). 즉 중증도의 우울은 일상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하며 심하면 자살사고(思考)나 자살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전 생애에 걸쳐 약 20%로, 남성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높으며, 가임기 여성의 발병률은 8~10%에 이른다고 한다(AHA Health Insight, 1999; 김지현, 2005에서 재인용).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에 취약한 것은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성역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Gotlib, Kurtzman, & Blehar, 1997). 실제로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김정선, 신경림, 2004; 조금숙, 조증열, 2004)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은 기혼남성에 비해 신경증 발병률이 높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나 심리적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양육으로 인한 우울의 심각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and Marks(2002)는 자녀가 있는 중년기 성인이 자녀가 없는 중년기 성인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보고했으며, Horwitz, Briggs-Gowan, Storfer-Isser, and Carter(2007)도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약 8~12%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McLanahan and Adams(1987)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수준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모의 우울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부부관계 및 자녀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정생활 전반에 문제를 발생시킨다(Scott, 1992). 특히 모의 우울이 어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Civic and Holt(2000)는 모의 우울증상이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초래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Conrad and Hammen(1989)은 모의 우울을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었고, Downey and Coyne(1990), Gordon et al.(1989)은 우울한 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여 자녀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정서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Sheppard(1997)는 모의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더 많이 학대하며 아동방임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모의 우울은 부정적 양육방식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한편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요구받는 취업모의 경우 역할과중 및 역할갈등으로 인해 높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이경혜, 2006; 하오령, 권정혜, 2006). 특히 사회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여성의 역할로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모는 죄책감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조윤진, 2012).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퇴근 후 육아와 가사는 여성이 거의 도맡아하기 때문에 취업모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희, 이은희. 2000; 최규련, 1993; 황혜원, 신정이, 2009).

기혼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지은, Nadine, 한경혜(2007)는 결혼상태 및 자녀유무에 따른 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이 그렇지 않은 취업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다고 밝혔고, Warr and Parry(1982)는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내야 하므로 더 높은 심리적 어려움과 우울감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Gore and Mangione(1983), Kessler and McRae(1982)는 기혼취업여성은 사회진출을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물질적·심리적 지지자원을 획득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립된 전업주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Cleary and Mechanic(1983)과 Northcutt(1980)는 기혼 취업여성과 전업주부 집단 간의 정신건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혼취업여성과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취업동기나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직업 관련 특성이 개인마다 상이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나 우울 또한 다양하게 발현(고은숙, 김명자, 1993;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김명자, 지혜선, 2000; 김선아, 남경아, 정향인, 2006; 김이진, 2000; 김효정, 2011; 문혁준, 2004; 정문자, 1999; Belsky, 1984)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직업 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제 5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우울 비교와는 별개로, 취업여성 집단 내에서 자녀양육이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송지은 외, 2007)가 존재하며, 대다수의 취업모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안선영, 1987; 윤지숙, 2002; 한국여성개발원, 20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은 자명한 현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의 우울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꾸준히 증가하는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율에 입각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사회적 관심을 두고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우울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정서적 반응으로서 (Garber & Seligman, 1980; Lloyd, 1980), 스트레스와 우울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희, 1987).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명권(1984)은 우울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횟수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고, 김미례(2006),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1999b), 이선이(1995)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현순(1993)과 정선화(2012)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국외연구로는 Billings, Cronkite, and Moos(1983)가 우울증 환자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생활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고하며 일상적인 긴장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고, Bolger, DeLongis, Kessler, and Schilling(1989)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생활 전반에 걸친 우울한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ole and Tuner(1993)와 Tram and Cole(2000)은 각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이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우울을 초래한다는 점을 밝혔고, Lewinsohn, Hoberman, and Rosenbaum(1988)은 우울증의 위험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종단연구로는 DeLongis, Folkman, and Lazarus(1988)가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태가 횡단적·종단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Nolen-Hoeksema, Girgus, and Seligman(1992)은 5년에 걸

친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의 우울증상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탐색한 결과, 선행하는 스트레스와 이후에 발생하는 우울의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스트레스가 우울을 촉발시킨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이소란, 2000; 임은경, 2009; 최보금, 홍상욱, 배옥현, 1996)가 대부분이었다. 산후우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권미경, 김혜원, 김남선, 장정애(2006), 권정혜(1996), 박영주, 신현정, 유호신, 천숙희, 윤소현(2004), 배정이(1996), 안옥심(2004), 유정미(2008) 등은 산후 1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태도나 양육스트레스가 산후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산후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는 김지현(2005)이 학령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해미(1994)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모가 자신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불안이나 우울이 심해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윤주(2012)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밝혔고, 이정윤, 장미경(2008)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국외 연구로는, Danielle and Abigail(2011)이 친모와 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두 집단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고하였고, Gove and Hughes(1979)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육스트레스

가 모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Susan et al.(2001)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흑인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만성적 긴장이 우울증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장애아의 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산후우울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만 1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초기 유아기 자녀를 둔 모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유아기에 제공되는 양육환경은 이후의 자아발달 및 성격 형성,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좌우하며, 이 시기의 유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하고 역동적인 발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김동배, 권중돈, 2010; 신의진, 2012). 한편으로는 그만큼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도 높은 시기이다(Gross et al., 1994). 또한 취업모는 자녀를 돌봄에 있어 불가피하게 대리양육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시기의 자녀를 맡기는 경우 대리양육자의 인성과 자질, 대리양육시설의 전문성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대리양육자원이 부족하여(통계청, 2011c) 취업모의 고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는 취약집단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유아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인 취업모를 조사대상으로 구체화하였다.

한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비슷한 연구로는 김선아 등(2006)이 23~67세의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모 역할에 대한 만족정도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성옥(1993), 백경임, 강희경(1995)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자녀양육을 가족 외 타인이나 탁아시설에 맡기는 데 있어 죄책감이나 분리불안을 느끼는 등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전영자(1992)는 전문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모는 부모역할, 직업역할, 부부역할 중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역할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역할과중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모의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에 관심을 둠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하겠다.

제 3 절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부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자아의 표상이다(Blascovich & Tomaka, 1991; 전해숙, 2008에서 재인용).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미경(2010)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였으며, 송대현(1993)은 자신에 관해서 느끼는 감정이자 자신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평가라고 하였다. Baumeister, Dori, and Hastings(1998)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고 기대하는 정도라고 설명하였고, Coopersmith(1967)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서 자신을 능력 있고 중요한 존재이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Mangen and Peterson(1982)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수반되는 감정이라고 보았고, Rosenberg(1979)는 자신에 대해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였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정옥분, 김경은, 박연정, 2006).

자아존중감은 그간의 연구에서 우울과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 권정혜, 노은여(1997)는 자아존중감을 이론적으로 우울과 가장 관계 깊은 변인으로 보았고, 최미영(2011) 또한 여러 인지요소 중 자아존중감이 우울증 발병 및 재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단독으로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 스트레스 대처 이론 등 스트레스 관련 이론들에서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최미례, 이인혜, 2003; Tran, Whight, & Chatters, 1991). 특히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 Pearlin et al.(1981)은 개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저하됨으로써 우울이 초래된다고 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설명하였다.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례(2006)는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심(2008)은 주요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긍정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는 등 정신건강이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김현순(2014)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존중감이 종단적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최미례, 이인혜(2003)의 연구에서는 성(性)별에 따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확인되었다. Culp and Beach(1993)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결혼불만족이라는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였고, Lee et al.(2013)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완전매개한다는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Simpson, Hillman, Crawford, and Overton(2010)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혐오가 역기능적 인지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하였다. Tram and Cole(2000)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양식을 형성함으로써 우울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논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비슷한 연구로는 이윤주(2012)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변동하는 정도를 뜻하는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정윤, 장미경(2008)은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역할 자긍심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취업모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4 절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이영선, 2009; 허립, 2010에서 재인용). 이때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개인이 속한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Pearlin, 1989).

사회적 지지에 대해 정선영(2003)은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제공받는 자원이라고 설명하였고, Cohen and Hoberman(1983)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이나 물질적 지원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보았다. Cohen and Willis(1985)는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이나 환경으로부터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 물질적 원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Pearlin et al.(1981)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집단, 혹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접촉하거나 그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물질적·정신적 안정 또는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각종 도움 및 자원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위기나 역경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주요 대처자원 중 하나로서,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인이라 하겠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우울, 좌절감 등 삶의 부정적 요소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크게 주 효과, 매개효과, 완충효과로 설명된다(유영선, 2012). 첫째, 사회적 지지의 주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단독으로 우울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즉 스트레스 여부와 관계없이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는 스트레스가 만성화됨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고갈되어 높은 우울로 연결되거나(김윤정, 2000),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함으로써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심희옥, 1996)을 의미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완충 또는 조절효과는 높은 사회적 지지를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이나 우울 등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이숙정, 2011).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주(2009)는 사회적 지지가 농촌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특히 정서적 지지가 우울 경감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다른 대처자원이나 문제해결방식의 매개효과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윤현숙, 구본미(2009)는 노인의 부정적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도구적 지지와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도구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며,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정서적·도구적·재정적 지지와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재정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jrouch, Reisine, Lim, Sohn, and Ismail(2008)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주변 이웃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한편, 연령이나 학력, 소득 등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eno et al.(2012)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디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없었으나 친구·동료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연구로는, 박애선(2013)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기능성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이숙자, 오수성(2006)은 발달장애아동의 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대처방식이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Norbeck, Linsey, and Carrieri(1981)는 모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및 갈등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며 긍정적 정신건강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매개요인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대부분 장애아동의 모를 그 대상으로 한다.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연구로 박영주 등(2004)이 산후우울의 중요 예측요인으로 낮은 사회적 지지를 꼽았고, Paykel, Emms, Fletcher, and Rassaby(1980)는 높은 사회적 지지가 산모의 정신건강 회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취업모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 절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관련 기타 요인

취업모의 우울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특히 직업 관련 요인이나 대리양육 관련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검증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 종교유무

첫째, 연령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정 등(1999b)이 20~6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선, 신경림(200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학력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김정연(2003), 박윤미(2002)는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풍부하고 자녀에 대해 적절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송금순(1984), 이광주(1988)는 모의 학력과 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하여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학력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다는 것(김현순, 1993; 위경선, 1995; 윤계준 외, 1991; 한홍무, 염

태호, 신영우, 윤도준, 정근재, 1986; Goudy & Lorens, 1989; Weissman, Leaf, Holzer, Tischler, & Myers, 1984)이 일반론이다. 학력이 다른 변인과 결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하는데, 김정선, 신경림(2004)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 우울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박해경(1998)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 우울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셋째, 소득수준도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구혜령(1991), 김미현, 류점숙, 신효식(1993), 박윤미(2002)는 취업모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밝혔다. 신희석(2002)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기혼여성은 생활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아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천희영, 옥경희(2011)와 Dearing, Taylor, and McCartney(2004)는 월 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의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넷째, 결혼상태 또한 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김정선, 신경림, 2004; 전겸구, 김교헌, 2003)은 기혼여성이 이혼, 별거, 혹은 사별 상태인 여성보다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더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2003), 이인숙(2002)은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섯째, 종교유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줌으로써(Oscar, 1982), 자아존중감 향상 및 정신건강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공선영, 2000; 김명자, 1990). 또한 신혜진(2005)은 종교의 심리적 기능에 대해 불안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희망과 목적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정서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2. 가족 관련 요인: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

첫째, 결혼만족도가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김지현(2005)은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Beach, Jouriles, and O'Leary(1985), Merikangas(1984), Weissman et al.(1984) 또한 결혼만족도와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기혼여성 중 특히 취업모 집단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많았다. 김정연(2003), 박윤미(2002), 최자령(1991)은 배우자가 가사분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정지연(2008)은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우울을 낮춰준다고 하였다. 반면 김선아 등(2006)의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이 배우자의 가사 도움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우울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삼숙(2005)은 배우자의 지지 중 취업모의 직업에 대한 지지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셋째, 자녀양육시간이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김효정(2011)은 미취학 자녀를 둔 사무직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일일 양육시간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다.

넷째,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가족형태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장병옥(1986), 편은숙(2004)에 따르면, 핵가족은 확대가족에 비해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연(2003), 최승순(1987)은 확대가족에 속한 모는 여러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핵가족의 모에 비해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다섯째, 자녀의 수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김미현 외, 1993; 심현진, 1994; 이안나, 신효식, 1991)가 지배적이나, 김효정(2011)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의 수가 유의미하게 적었다고 나타났다. 한편 자녀수와 모의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해경(1998)이 자녀가 1명인 모의 우울이 가장 높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윤석원 등(1997)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및 양육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모의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3. 직업 관련 요인: 직업종류, 근무시간, 근무조건의 융통성, 직업만족도

첫째, 취업모가 속한 직업의 종류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고은숙, 김명자(1993), 정문자(1999)는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의 취업모가 사무직의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김선아 등(2006)은 생산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사무직, 전문직의 경우보다 모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는 한편, 자영업을 하는 취업모가 정규직이나 계약임시직 등의 형태로 직장에 소속된 취업모보다 우울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기원 등(2010)은 직

업종류나 취업유형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 근무시간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김효정(2011)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우울이 높은 집단은 각각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일근무시간이 유의미하게 많았다고 하였다.

셋째, 근무조건의 융통성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 주요하게 다뤄지는 요인이다. 취업모의 경우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등이 직장 내에서 제도적·실제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김이진(2000)은 근무환경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지만, 강희경, 조복희(1999), 박윤미(2002)는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한편 김기원 등(2010)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단독으로는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직업만족도 등 다른 직업 관련 특성들과 함께 분석모델에 투입할 때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넷째, 직업만족도 역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선행연구(김기원 외, 2010; 김명자, 지혜선, 2000; 문혁준, 2004; Belsky, 1984)에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 또한 김선아 등(2006)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우울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4. 대리양육 관련 요인: 대리양육방식, 대리양육 안정성, 대리양육만족도

첫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이용하는 대리양육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리양육방식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의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 비혈연관계의 직업적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 지인에게 맡기는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맡기는 경우로 나뉜다. 강미란(2004)은 비혈연관계의 대리양육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혈연관계의 대리양육자 혹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혔다. 또한 배경운(2014)은 기관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혈연관계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다고 하였다.

둘째, 대리양육 안정성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대리양육 안정성이란 특정 대리양육자 혹은 대리양육기관을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백경임, 강희경(1995), Galinsky(1992)는 대리양육 안정성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죄책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대리양육자나 기관을 자주 변경할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대리양육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김교연(1994), Greenberger and O'Neil(1990)은 대리양육서비스 및 시설의 질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일-가정 간 역할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하였고, 강희경, 조복희(1999), 박윤미(2002), 조혜승(1997)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대리양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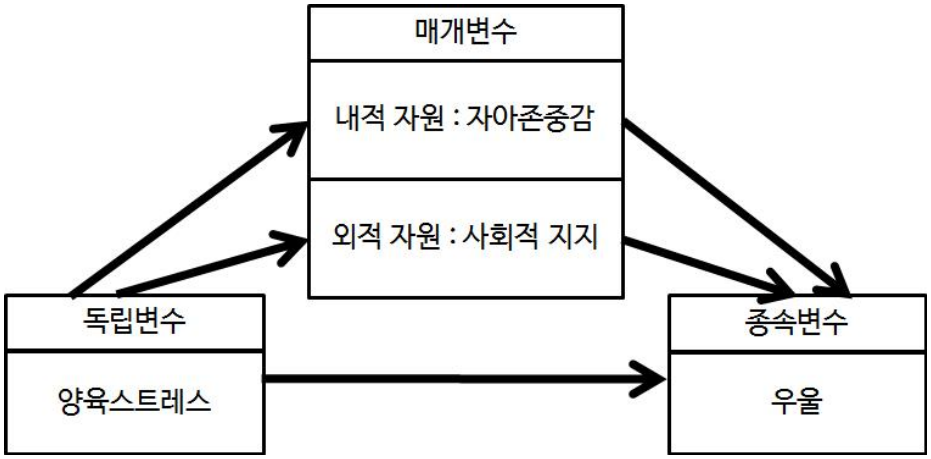
이상에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 종교유무,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 근무시간, 직업만족도, 대리양육방식, 대리양육만족도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킨다. 이 중 배우자의 지지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지, 즉 배우자의 양육참여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원(原)'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요인'으로, 우울을 '스트레스 결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다.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 종교유무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
직업 관련 요인	대리양육 관련 요인
근무시간, 직업만족도	대리양육방식, 대리양육만족도

【그림 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전국 규모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동일 연령 집단의 성장·발달과정 및 그와 관련된 양육실태, 육아지원서비스의 효과,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향후 육아정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육아정책연구소, 2010).

「한국아동패널」은 표본 선정에 있어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해 신생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기관을 비례적 층화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표집틀로 삼아 체계적 무선표집법을 적용하여 총 30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해당 기관에서 출산한 산모 중 패널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2008년 1차년도 조사에 실제로 응한 2,078 가구를 최종 패널로 확정하였다. 전년 대비 표본 유지율은 매해 9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2차년도 조사에는 1,904 가구, 2010년 3차년도 조사에는 1,802 가구가 참여하였다(한국육아정책연구소, 2010). 본 연구는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만 2세 전후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 조사는 매해 설문조사로 실시되는 일반조사와,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주요 발달단계마다 관찰, 면접, 검사 등을 통해 실시되는 심층조사로 나뉜다. 일반조사용 설문지는 다시 어머니 대상 질문지, 아버지 대상 질문지, 면접조사용 질문지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조사

자료 중 어머니 대상 질문지와 면접조사용 질문지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취업모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만 선정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주요 변수가 모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 본인이 직접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취업모가 직장 근무시간 외에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돌봄으로써 다중역할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가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직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휴직 중인 모는 제외한다. 그 결과, 총 502명의 취업모가 연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3)]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2문항을 발췌하여 이용하였다. 이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PSI-SF)을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그러나 2007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 12문항 중 1문항의 진술("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이 모호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총 11개 문항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주어진 보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56 으로 분석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구성

문 항 내 용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진 않는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3)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아동패널 2008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을 참고한 것이며, 본문 중 인용 또한 그로부터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6) 요즘은 육아정보다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종속변수: 우울[4)]

모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et al.(2002)에 의해 개발된 K6[5)]를 사용하였다. 이는 미국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비장애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는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K6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보기가 '전혀 안 느낌'(1), '별로 안 느낌'(2), '종종 느낌'(3), '대체로 느낌'(4), '항상 느낌'(5)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우울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6-13점은 정상 수준, 14-18점은 경도 및 중등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분류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13 으로 분석

4)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아동패널 2008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을 참고한 것이며, 본문 중 인용 또한 그로부터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5) K6는 본래 우울, 불안, 전반적 안녕상태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심리적 디스트레스(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Kessler et al., 2002),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우울 척도로 다루었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도 K6의 측정결과를 우울 변수로 취급하였으며, 본 연구도 K6의 점수를 취업모의 우울 수준으로 해석하여 가설 검증에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록 2]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되었다.

우울 척도의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우울 척도의 문항 구성

문 항 내 용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6)]

1) 자아존중감

모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이상균(1999)의 한국어 번역본을 이용하였다. 다만, 원(元) 척도의 10번 문항 “At times I am no good at all.”에 대해서는 이상균(1999)의 번역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를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no good"의 의미가 무능하다는 것보다 쓸모없다는 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보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

6)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아동패널 2008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을 참고한 것이며, 본문 중 인용 또한 그로부터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다'(4)로 이루어진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5문항을 역코딩한 후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72 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구성

문 항 내 용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역코딩
4) 남들이 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역코딩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역코딩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역코딩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역코딩

2) 사회적 지지

모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재림, 옥선화(2001)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그 내용에 따라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구분한다. 이 척도는 동거 중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단체, 기관 등 가정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보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43 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문 항 내 용	구분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정서적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사교적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정서적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도구적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정보적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보적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사교적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사교적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사교적

4. 통제변수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투입된 통제변수를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족 관련 변수, 직업 관련 변수, 대리양육 관련 변수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령 : 20대 이하는 (1), 30대는 (2), 40대 이상은 (3)으로 코딩하였다.

학력 : 대학교 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교 입학 미만일 경우는 (0), 대학교 입학 이상일 경우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소득수준 : 월 평균가구소득을 만원 단위로 측정하여 200만원 이하는 (1), 201만원 - 300만원은 (2), 301만원 - 400만원은 (3), 401만원 - 500만원은 (4), 501만원 이상은 (5)로 코딩하였다.

결혼상태 :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0),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종교유무 : 종교가 없는 경우는 (0), 종교가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2) 가족 관련 변수

결혼만족도[7] : Schumm, Nicols, Schectman, and Grigsby(1983)가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Chung(2004)이 국내 문화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7점 리커트 척도이나,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다른 척도들이 대체로 5점 척도임을 고려하여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해 5점 척도로 수정되었다. 척도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로 '매우 불만족'(1), '비교적 불만족'(2), '보통'(3), '비교적 만족'(4), '매우 만족'(5)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25 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의 양육참여[8] : 홍성례(1995)가 개발한 기혼남성의 가족역할수행 척도에서 부(父) 역할을 측정하는 문항 4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주어진 보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배우자의 양육참여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9 로 분석되었다.

양육시간 : 주(週)당 총 양육시간을 분 단위로 환산하여 1,000분 미만은 (1), 1,000분 이상 - 2,000분 미만은 (2), 2,000분 이상 - 3,000분 미만은 (3), 3,000분 이상은 (4)로 코딩하였다.

---

7)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아동패널 2008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을 참고한 것이며, 해당내용 중 인용 또한 그로부터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8)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아동패널 2008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을 참고한 것이며, 해당내용 중 인용 또한 그로부터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가족형태 :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0), 부모와 자녀 외에 다른 친척도 함께 사는 확대가족은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자녀수 :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는 (1), 2명인 경우는 (2), 3명 이상인 경우는 (3)으로 코딩하였다.

3) 직업 관련 변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주(週)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週)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는 (0), 40시간 초과인 경우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직업만족도 :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스럽다'(1), '불만족스럽다'(2), '보통이다'(3), '만족스럽다'(4), '매우 만족스럽다'(5) 중 택일하도록 하였다.

4) 대리양육 관련 변수

대리양육방식 : 혈연관계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0), 혈연관계가 아닌 직업적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혹은 대리양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대리양육자와 대리양육기관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시간이 더 긴 쪽을 선택하였다.

대리양육만족도 : 이용 중인 대리양육자 혹은 대리양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1), '비교적 불만족'(2), '보통'(3), '비교적 만족'(4), '매우 만족'(5) 중 택일하도록 하였다.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에 대해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취업모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 우울,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가설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와 『연구가설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총 4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①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②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③단계에서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④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④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매개변수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며,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박용권, 2012). ①, ②, ③, ④단계를 실행함에 있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직업 관련 특성, 대리양육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 종교유무를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된 취업모의 연령은 20대 이하가 60명(12.0%), 30대가 420명(84.2%), 40대 이상이 19명(3.8%)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연령이 20-40대에 집중되어있으며, 그 중 30대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취업모의 학력은 대학교 입학 미만이 103명(22.2%), 대학교 입학 이상이 362명(77.8%)으로, 대학교 입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셋째, 취업모의 소득수준은 월 평균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월 평균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4명(8.8%), 201만원에서 300만원인 경우가 105명(20.9%), 301만원에서 400만원인 경우가 112명(22.3%), 401만원에서 500만원인 경우가 112명(22.3%), 501만원 이상인 경우가 129명(25.7%)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의 90% 이상이 월 평균 2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월 평균가구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도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모의 결혼상태를 배우자 유무로 살펴보았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4명(0.8%),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98명(99.2%)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취업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취업모의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233명(46.5%), 종교가 있는 경우가 268명(53.5%)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이하	60	12.0
	30대	420	84.2
	40대 이상	19	3.8
학력	대학교 입학 미만	103	22.2
	대학교 입학 이상	362	77.8
소득 수준	200만원 이하	44	8.8
	201만원 - 300만원	105	20.9
	301만원 - 400만원	112	22.3
	401만원 - 500만원	112	22.3
	501만원 이상	129	25.7
결혼 상태	배우자 없음	4	0.8
	배우자 있음	498	99.2
종교 유무	종교 없음	233	46.5
	종교 있음	268	53.5

2.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가족 관련 특성으로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양육참여,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를 살펴보았다.

첫째, 취업모의 결혼만족도는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결혼만족도의 평균값은 15.27, 표준편차는 3.231로 계산되었고, 최소값은 4, 최대값은 20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양육참여 또한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배우자의 양육참여 평균값은 15.18, 표준편차는 3.380으로 계산되었고, 최소값은 4, 최대값은 20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모의 양육시간은 주(週)당 양육시간을 분 단위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한 주의 양육시간이 1,000분 미만인 경우가 88명(17.6%), 1,000분 이상 - 2,000분 미만인 경우가 201명(40.1%), 2,000분 이상 - 3,000분 미만인 경우가 151명(30.1%), 3,000분 이상인 경우가 61명(12.2%)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70% 이상이 일주일에 1,000-3,000분의 시간을 자녀양육에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취업모의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과 그 외에 다른 친척도 함께 사는 확대가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핵가족이라고 답한 모는 417명(83.9%), 확대가족이라고 답한 모는 80명(16.1%)으로 핵가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다섯째, 취업모의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219명(43.6%), 2명인 경우가 230명(45.8%), 3명 이상인 경우가 53명(10.6%)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취업모가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① -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양육참여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혼만족도	15.27	3.231	4	20
배우자의 양육참여	15.18	3.380	4	20

【표 7】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련 특성② -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양육 시간	1,000분 미만	88	17.6
	1,000분 이상 - 2,000분 미만	201	40.1
	2,000분 이상 - 3,000분 미만	151	30.1
	3,000분 이상	61	12.2
가족 형태	핵가족(부모+자녀)	417	83.9
	확대가족(부모+자녀+친척)	80	16.1
자녀수	1명	219	43.6
	2명	230	45.8
	3명 이상	53	10.6

3. 연구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관련 특성으로 근무시간과 직업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법정근로시간인 주(週)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週)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와 40시간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 주에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모는 276명(55.0%),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취업모는 226명(45.0%)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으로 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불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13명(2.6%), '보통'으로 답한 경우가 167명(33.3%), '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297명(59.2%), '매우 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25명(5.0%)이었다. 취업모의 90% 이상이 '보통' 또는 '만족'으로 답하였고, 과반수가 직업에 '만족'한다고 하여 직업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연구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근무 시간	40시간 이하	276	55.0
	40시간 초과	226	45.0
직업 만족도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13	2.6
	보통	167	33.3
	만족	297	59.2
	매우 만족	25	5.0

4. 연구대상자의 대리양육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대리양육 관련 특성으로 대리양육방식과 대리양육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리양육방식은 혈연관계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 혹은 대리양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혈연관계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취업모는 130명(28.2%), 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331명(71.8%)이었다. 즉 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 및 기관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혈연관계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둘째, 취업모의 대리양육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5명(1.1%), ‘비교적 불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12명(2.6%), ‘보통’으로 답한 경우가 64명(13.9%), ‘비교적 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298명(64.5%), ‘매우 만족’으로 답한 경우가 83명(18.0%)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90% 이상이 대리양육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하였고, 과반수가 ‘비교적 만족’으로 평가하여 대리양육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연구대상자의 대리양육 관련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대리양육 방식	혈연관계 대리양육자	130	28.2
	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 대리양육기관	331	71.8
대리양육 만족도	매우 불만족	5	1.1
	비교적 불만족	12	2.6
	보통	64	13.9
	비교적 만족	298	64.5
	매우 만족	83	18.0

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는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종속변수인 우울 등 4가지이다. 각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11-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평균값은 29.66, 표준편차는 6.665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11, 최대값은 53이었다. 왜도의 절대값은 .088, 첨도의 절대값은 .417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일 때, 분포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은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1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평균값은 30.63, 표준편차는 4.051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20, 최대값은 40이었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068, .176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셋째,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는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평균값은 46.66, 표준편차는 7.813으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22, 최대값은 60이었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15, .176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넷째, 취업모의 우울은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평균값은 11.45, 표준편차는 4.112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6, 최대값은 25이었다. 우울을 측정한 K6 척도는 6-13점을 정상 수준, 14-15점을 경도 및 중등도 우울, 19-30점을 중도 우울로 분류하는데, 취업모의 우울은 평균적으로 정상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528, .074로 나타나 우울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표 10】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양육스트레스	29.66	6.665	11	53	.088	.417
자아존중감	30.63	4.051	20	40	.068	-.176
사회적 지지	46.66	7.813	22	60	-.315	.176
우울	11.45	4.112	6	25	.528	.074

제 3 절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모형에 투입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487이었으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각각 -.533, -.275이었으며 모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인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각각 -.525, -.257이었으며 모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결혼상태($r=.100$, $p<.05$), 결혼만족도($r=-.288$, $p<.01$), 배우자의 양육참여($r=-.242$, $p<.01$), 직업만족도($r=-.201$, $p<.01$), 대리양육만족도($r=-.120$,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결혼상태는 양육스트레스와 정

적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나머지 변수들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0),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으므로 유배우자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들(김정선, 신경림, 2004; 전겸구, 김교헌, 2003)과 상반되는 내용인데, 【표 5】에 제시되어있듯이 조사대상자 502명 중 4명, 즉 0.8%만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속하여 편포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양육참여, 직업만족도, 대리양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우울 간의 상관관계 또한 살펴보았다. 결혼만족도($r=-.340$, $p<.01$), 배우자의 양육참여($r=-.237$, $p<.01$), 직업만족도($r=-.187$, $p<.01$), 대리양육만족도($r=-.093$, $p<.05$)가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양육참여, 직업만족도, 대리양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8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모든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533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변수들 간 상관관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상태	종교유무	결혼 만족도	배우자 양육참여	양육시간	가족형태	자녀수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대리양육 방식	대리양육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우울
연령	1.000																	
학력	.064	1.000																
소득수준	.128**	.317**	1.000															
결혼상태	-.019	-.050	.024	1.000														
종교유무	.113*	-.005	-.061	-.084	1.000													
결혼 만족도	.032	.086	.135**	-.014	.039	1.000												
배우자 양육참여	-.031	.043	.087	-.006	-.040	.478**	1.000											
양육시간	.080	.041	.000	-.038	.025	.109*	.027	1.000										
가족형태	-.051	-.070	.032	-.083	.071	.017	-.057	-.045	1.000									
자녀수	.261**	-.152**	-.087	.091*	.069	-.086	-.079	-.082	.012	1.000								
근로시간	-.016	-.058	.143**	-.054	-.047	-.018	.094*	-.152**	-.023	-.026	1.000							
직업 만족도	.053	.172**	.234**	-.012	.074	.166**	.144**	.079	.044	-.062	-.035	1.000						
대리양육 방식	-.010	-.110*	-.170**	-.007	.097*	.015	-.007	.074	-.142**	.189**	-.117*	-.087	1.000					
대리양육 만족도	.040	.020	-.031	-.038	.016	.057	.087	-.048	.034	.039	-.004	.196**	-.185**	1.000				
양육 스트레스	-.019	-.010	-.060	.100*	-.011	-.288**	-.242**	-.060	-.007	.022	-.011	-.201**	.042	-.120*	1.000			
자아 존중감	.015	.043	.141**	-.014	.021	.314**	.289**	.034	.002	-.029	.026	.248**	-.030	.020	-.533**	1.000		
사회적 지지	-.045	.056	.081	.011	.019	.165**	.250**	.046	-.063	-.080	-.028	.188**	-.135**	.026	-.275**	.383**	1.000	
우울	.004	-.020	-.045	.043	.001	-.340**	-.237**	-.020	-.001	.019	-.007	-.187**	.043	-.093*	.487**	-.525**	-.257**	1.000

* p<.05, ** p<.01, *** p<.001

제 4 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은 그 내용 및 분석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4단계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Sobel Test를 실시한다.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예측치와 표준화된 잔차 사이에 산점도를 그려봄으로써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상관을 검사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그 수치가 2-3 사이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하기 위해 VIF를 살펴보았으나, 그 값이 1-2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각 투입변수마다 결측값을 가지는 사례가 자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연구대상 총 502명 중 415명만이 가설 검증에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1.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가설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회귀모형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앞서 제시한 통제변수들을 투입

하였다.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

[모형 1]

$$Y = a + b_1X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D_5 + b_6D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D_{10} + b_{11}X_{11} + b_{12}D_{12} + b_{13}X_{13} + b_{14}D_{14} + b_{15}X_{15} + e$$

Y : 우울

X_1 : 양육스트레스

X_2 : 연령

D_3 : 학력(0=대학교 입학 미만, 1=대학교 입학 이상)

X_4 : 소득수준

D_5 : 결혼상태(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6 : 종교유무(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7 : 결혼만족도

X_8 : 배우자의 양육참여

X_9 : 양육시간

D_{10} : 가족형태(0=핵가족, 1=확대가족)

X_{11} : 자녀수

D_{12} : 근무시간(0=40시간 이하, 1=40시간 초과)

X_{13} : 직업만족도

D_{14} : 대리양육방식(0=혈연관계 대리양육자, 1=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대리양육기관)

X_{15} : 대리양육만족도

위의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2】에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의 β(표준화된 계수)값이 .391(p〈.001)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우울은 .391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254로 나타나, 이 모형이 취업모 우울의 변량의 25.4%를 설명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혼만족도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결혼만족

도의 β값은 -.227로, 결혼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우울은 .227 만큼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표 12】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 우울		
		B	S.E	β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238	.028	.391***
통제변수	연령	.105	.474	.010
	학력	.168	.450	.017
	소득수준	.176	.152	.056
	결혼상태	1.211	2.551	.021
	종교유무	.057	.357	.007
	결혼만족도	-.290	.065	-.227***
	배우자의 양육참여	-.027	.059	-.022
	양육시간	.124	.203	.027
	가족형태	.169	.490	.015
	자녀수	-.057	.285	-.009
	근무시간	-.055	.363	-.007
	직업만족도	-.299	.310	-.045
	대리양육방식	.457	.422	.050
	대리양육만족도	-.104	.257	-.018
상수		8.079*	3.435	
R^2		.281		
Adjusted R^2		.254		
F		10.399***		

* p<.05, ** p<.01, *** p<.001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①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는 『연구가설 1』의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②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단계로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④단계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①단계의 영향력에 비해 감소해야 한다. 이때 ③단계와 ④단계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가 모두 투입된 분석모형을 통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②단계)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한 모형 내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③, ④단계)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②단계로,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에 대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②단계」 회귀모형

[모형 2]

$$Y = a + b_1X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D_5 + b_6D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D_{10} + b_{11}X_{11} + b_{12}D_{12} + b_{13}X_{13} + b_{14}D_{14} + b_{15}X_{15} + e$$

Y : 자아존중감

X_1 : 양육스트레스

X_2 : 연령

D_3 : 학력(0=대학교 입학 미만, 1=대학교 입학 이상)

X_4 : 소득수준

D_5 : 결혼상태(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6 : 종교유무(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7 : 결혼만족도
X_8 : 배우자의 양육참여
X_9 : 양육시간
D_{10} : 가족형태(0=핵가족, 1=확대가족)
X_{11} : 자녀수
D_{12} : 근무시간(0=40시간 이하, 1=40시간 초과)
X_{13} : 직업만족도
D_{14} : 대리양육방식(0=혈연관계 대리양육자, 1=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대리양육기관)
X_{15} : 대리양육만족도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③단계와 ④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자아존중감)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③, ④단계」 회귀모형

[모형 3]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D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D_{11} + b_{12}X_{12} + b_{13}D_{13} + b_{14}X_{14} + b_{15}D_{15} + b_{16}X_{16} + e$$

Y : 우울

X_1 : 양육스트레스
X_2 : 자아존중감
X_3 : 연령
D_4 : 학력(0=대학교 입학 미만, 1=대학교 입학 이상)
X_5 : 소득수준
D_6 : 결혼상태(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7 : 종교유무(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8 : 결혼만족도
X_9 : 배우자의 양육참여
X_{10} : 양육시간
D_{11} : 가족형태(0=핵가족, 1=확대가족)
X_{12} : 자녀수
D_{13} : 근무시간(0=40시간 이하, 1=40시간 초과)
X_{14} : 직업만족도
D_{15} : 대리양육방식(0=혈연관계 대리양육자, 1=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대리양육기관)
X_{16} : 대리양육만족도

위의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총 4단계의 결과를 【표 13】에 정리하였다.

②단계 모형부터 살펴보면,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β=-.490)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의 ②단계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351로, 모형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3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 결혼만족도(β=.116, p<.05)와 직업만족도(β=.106, p<.05)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④단계 모형을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자아존중감)가 종속변수(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36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매개효과 검증의 ③단계 조건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또한 ①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β=.391(p<.001)이었으나, ③, ④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자아존중감)가 동시에 투입되자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β=.218(p<.001)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개효과 검증의 ④단계 조건도 성립하며,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9]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④단계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336으로, 모형이 취업모 우울의 변량의 33.6%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의 R^2값(.362)은 ①단계 모형에서 매개변수(자아존중감) 없이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만 투입하였을 때의 R^2값(.281)에 비해 .081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가로 투입된 매개변수(자아존중감)가 종속변수(우울)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

9)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④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①단계에 비해 감소하되 통계적 유의미성을 띤다면 부분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박용권, 2012).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 결혼만족도만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β=-.17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하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4단계의 조건이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입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의 검증값은 6.06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13】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①단계			②단계			③, ④단계		
		양육스트레스 ⇨ 우울			양육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 우울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238	.028	.391***	-.299	.026	-.490***	.132	.030	.218***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	-	-	-	-	-	-.357	.050	-.360***
통제변수	연령	.105	.474	.010	.244	.447	.023	.113	.449	.011
	학력	.168	.450	.017	-.090	.423	-.009	.159	.424	.016
	소득수준	.176	.152	.056	.165	.143	.052	.232	.144	.074
	결혼상태	1.211	2.551	.021	.742	2.390	.013	1.409	2.399	.024
	종교유무	.057	.357	.007	.192	.335	.023	.139	.337	.017
	결혼만족도	-.290	.065	-.227***	.149	.061	.116*	-.225	.062	-.176***
	배우자의 양육참여	-.027	.059	-.022	.105	.056	.087	.000	.057	.000
	양육시간	.124	.203	.027	-.005	.191	-.001	.125	.192	.027
	가족형태	.169	.490	.015	.103	.457	.009	.193	.461	.017
	자녀수	-.057	.285	-.009	-.084	.269	-.013	-.012	.270	-.002
	근무시간	-.055	.363	-.007	.081	.341	.010	-.065	.343	-.008
	직업만족도	-.299	.310	-.045	.709	.291	.106*	-.083	.294	-.012
	대리양육방식	.457	.422	.050	.129	.394	.014	.485	.397	.054
	대리양육만족도	-.104	.257	-.018	-.209	.241	-.036	-.150	.243	-.026
상수		8.079*	3.435	-	32.074***	3.222	-	19.629***	3.616	-
R^2		.281			.375			.362		
Adjusted R^2		.254			.351			.336		
R^2 변화량		-			-			.081***		
F		10.399***			15.858***			14.025***		

* p<.05, ** p<.01, *** p<.001

【표 14】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 Test	
a[10]	S_a[11]	b[12]	S_b[13]	Test Statistics	p-value
-.299	.026	-.357	.050	6.066***	.000

* p<.05, ** p<.01, *** p<.001

3.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4단계를 적용한다. 앞서 『연구가설 1』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의 ①단계 조건은 이미 성립되었다. 따라서 ②단계로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③단계와 ④단계로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사회적 지지)를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 각각의 변수가 종속변수(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②단계로,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에 대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10) a :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
11) S_a : a의 표준오차
12) b :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자아존중감)가 종속변수(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
13) S_b : b의 표준오차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검증 ②단계」 회귀모형

[모형 4]

$$Y = a + b_1X_1 + b_2X_2 + b_3D_3 + b_4X_4 + b_5D_5 + b_6D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D_{10} + b_{11}X_{11} + b_{12}D_{12} + b_{13}X_{13} + b_{14}D_{14} + b_{15}X_{15} + e$$

Y : 사회적 지지

X_1 : 양육스트레스

X_2 : 연령

D_3 : 학력(0=대학교 입학 미만, 1=대학교 입학 이상)

X_4 : 소득수준

D_5 : 결혼상태(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6 : 종교유무(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7 : 결혼만족도

X_8 : 배우자의 양육참여

X_9 : 양육시간

D_{10} : 가족형태(0=핵가족, 1=확대가족)

X_{11} : 자녀수

D_{12} : 근무시간(0=40시간 이하, 1=40시간 초과)

X_{13} : 직업만족도

D_{14} : 대리양육방식(0=혈연관계 대리양육자, 1=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대리양육기관)

X_{15} : 대리양육만족도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③, ④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검증 ③, ④단계」 회귀모형

[모형 5]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D_4 + b_5X_5 + b_6D_6 + b_7D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D_{11} + b_{12}X_{12} + b_{13}D_{13} + b_{14}X_{14} + b_{15}D_{15} + b_{16}X_{16} + e$$

Y : 우울

X_1 : 양육스트레스

X_2 : 사회적 지지

X_3 : 연령

D_4 : 학력(0=대학교 입학 미만, 1=대

학교 입학 이상)
X_5 : 소득수준
D_6 : 결혼상태(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7 : 종교유무(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8 : 결혼만족도
X_9 : 배우자의 양육참여
X_{10} : 양육시간
D_{11} : 가족형태(0=핵가족, 1=확대가족)
X_{12} : 자녀수
D_{13} : 근무시간(0=40시간 이하, 1=40시간 초과)
X_{14} : 직업만족도
D_{15} : 대리양육방식(0=혈연관계 대리양육자, 1=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대리양육기관)
X_{16} : 대리양육만족도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매개효과 검증 4단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15】에 정리하였다.

②단계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β=-.20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의 ②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135로, 모형이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 변량의 1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제변수 중 배우자의 양육참여(β=.189, p<.001), 가족형태(β=-.117, p<.05), 직업만족도(β=.114, p<.05), 대리양육방식(β=-.133, p<.01)이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③, ④단계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11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의 ③단계 조건이 성립되었다. 또한 ①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β=.391(p<.001)이었던 것에 비해, 매개변수(사회적 지지)가 추가로 투입된 ③, ④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β=.373(p<.001)으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매개효과 검증의

④단계 조건도 성립되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④단계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266으로, 모형이 취업모 우울의 변량의 26.6%를 설명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모형의 R^2값(.295)은 1단계 모형(R^2=.281)에 비해 .014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가로 투입된 매개변수(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우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개변수를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발생한 R^2값 증가량이 자아존중감의 경우 .081이었던 반면, 사회적 지지의 경우 그보다 작은 .014로 조사되어,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이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절의 마지막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결혼만족도만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β=-.22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4단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6】에 정리하였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Sobel Test의 검증값은 2.04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15】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①단계			②단계			③, ④단계		
		양육스트레스 ⇨ 우울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 우울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238	.028	.391***	-.247	.058	-.209***	.227	.028	.373***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	-	-	-	-	-	-	-.056	.024	-.110*
통제변수	연령	.105	.474	.010	-1.535	1.001	-.075	-.053	.474	-.005
	학력	.168	.450	.017	.161	.955	.008	.120	.451	.012
	소득수준	.176	.152	.056	.135	.321	.022	.195	.151	.062
	결혼상태	1.211	2.551	.021	2.925	5.350	.026	1.296	2.528	.022
	종교유무	.057	.357	.007	1.146	.754	.072	.087	.357	.011
	결혼만족도	-.290	.065	-.227***	-.051	.136	-.020	-.289	.064	-.227***
	배우자의 양육참여	-.027	.059	-.022	.443	.125	.189***	-.005	.060	-.004
	양육시간	.124	.203	.027	.251	.429	.028	.170	.203	.037
	가족형태	.169	.490	.015	-2.535	1.025	-.117*	-.035	.490	-.003
	자녀수	-.057	.285	-.009	-.475	.607	-.039	.010	.287	.002
	근무시간	-.055	.363	-.007	-.887	.769	-.056	-.154	.364	-.019
	직업만족도	-.299	.310	-.045	1.489	.656	.114*	-.305	.312	-.046
	대리양육방식	.457	.422	.050	-2.354	.885	-.133**	.284	.423	.031
	대리양육만족도	-.104	.257	-.018	-.534	.541	-.048	-.075	.256	-.013
상수		8.079*	3.435	-	46.426***	7.209	-	10.814**	3.580	-
R^2		.281			.167			.295		
Adjusted R^2		.254			.135			.266		
R^2 변화량		-			-			.014*		
F		10.399***			5.262***			10.230***		

* p<.05, ** p<.01, *** p<.001

【표 16】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 Test	
a	S_a	b	S_b	Test Statistics	p-value
-.247	.058	-.056	.024	2.046*	.041

* p<.05, ** p<.01, *** p<.001

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

지금까지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였다. 각 검증모형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보다 매개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단계 중 ④단계의 성립조건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가지는 영향력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개변수가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 혹은 전부가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에 흡수되어 독립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앞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가 투입되기 전,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19이었으나,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자 그 값이 .218로 줄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에는 β값이 .373으로 작아져 상대적으로 소폭의 변화량을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보다 취업모의 우울을 더 잘 설명함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한 모형의 R^2값 증가량이 사회적 지지로 인한 R^2값 증가량보다 큰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개별모형 비교

	매개변수 투입 전	매개변수 투입 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β)	.391***	.218***	.373***
모형의 적합도(R^2)	.281	.362	.295

* p<.05, ** p<.01, *** p<.001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보다 큰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분석모형에서 살펴봄으로써 두 변수의 매개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함께 투입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 회귀모형

[모형 6]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D_5 + b_6X_6 + b_7D_7 + b_8D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b_{12}D_{12} + b_{13}X_{13} + b_{14}D_{14} + b_{15}X_{15} + b_{16}D_{16} + b_{17}X_{17} + e$$

Y : 우울

X_1 : 양육스트레스

X_2 : 자아존중감

X_3 : 사회적 지지

X_4 : 연령

D_5 : 학력(0=대학교 입학 미만, 1=대학교 입학 이상)

X_6 : 소득수준

D_7 : 결혼상태(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D_8 : 종교유무(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X_9 : 결혼만족도

X_{10} : 배우자의 양육참여

X_{11} : 양육시간

D_{12} : 가족형태(0=핵가족, 1=확대가족)

X_{13} : 자녀수

D_{14} : 근무시간(0=40시간 이하, 1=40시간 초과)

X_{15} : 직업만족도

D_{16} : 대리양육방식(0=혈연관계 대리양육자, 1=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대리양육기관)
X_{17} : 대리양육만족도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표 18】에 정리하였다.[14] 먼저 매개효과 검증의 ③단계를 살펴보았다. ③단계의 성립조건은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③, ④단계 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5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β=-.0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 성립의 ③단계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사회적 지지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앞서 개별모형에서는 그 매개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통합모형에서는 매개효과가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해 매개효과 검증의 ④단계를 살펴보았다. ④단계의 조건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수가 추가됨으로써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단계의 모형과 ③, ④단계의 모형을 비교해볼 때, 자아존중감이 투입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β=.391(p<.001)에서 β=.220(p<.001)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매개효과 검증의 ④단계 조건 또한 성립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개별모형뿐 아니라 통합모형에서도 매개효과를 가짐이 입증되었다.

③, ④단계 모형의 수정된 R^2값은 .344로, 이 모형이 취업모 우울의 변량의 34.4%를 설명하고 있음을 뜻한다. 모형의 R^2값은 .371로 나타

14) 매개효과 검증의 ②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통합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모두 매개변수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2개의 매개변수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개별모형(【표 13】, 【표 15】)을 참고하도록 하고, 【표 18】에서는 생략하였다.

나, 1단계 모형의 R^2값(.281)에 비해 .090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R^2값의 증가는 자아존중감의 투입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개별모형과 마찬가지로 통합모형에서도 통제변수 중 결혼만족도만이 취업모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β=-.17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합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지 입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의 검증값은 5.759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하면,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개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제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개효과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6장의 제 2절, 논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는 개별모형 및 통합모형 모두에서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는 개별모형에서는 지지되었으나 통합모형에서는 기각되어 부분적으로만 채택되었다.

【표 18】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통합모형

		①단계			③, ④단계		
		양육스트레스 ⇨ 우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 우울		
		B	S.E	*β*	*B*	S.E	*β*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238	.028	.391***	.133	.030	.220***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	-	-	-.346	.052	-.350***
	사회적 지지	-	-	-	-.016	.024	-.031
통제변수	연령	.105	.474	.010	.062	.449	.006
	학력	.168	.450	.017	.088	.428	.009
	소득수준	.176	.152	.056	.251	.144	.080
	결혼상태	1.211	2.551	.021	1.421	2.389	.024
	종교유무	.057	.357	.007	.156	.339	.019
	결혼만족도	-.290	.065	-.227***	-.226	.062	-.177***
	배우자의 양육참여	-.027	.059	-.022	.004	.057	.003
	양육시간	.124	.203	.027	.163	.192	.035
	가족형태	.169	.490	.015	.081	.464	.007
	자녀수	-.057	.285	-.009	.079	.274	.012
	근무시간	-.055	.363	-.007	-.117	.345	-.014
	직업만족도	-.299	.310	-.045	-.134	.297	-.020
	대리양육방식	.457	.422	.050	.419	.400	.046
	대리양육만족도	-.104	.257	-.018	-.118	.242	-.021
상수		8.079*	3.435	-	19.996***	3.660	-
R^2		.281			.371		
Adjusted R^2		.254			.344		
R^2 변화량		-			.090***		
F		10.399***			13.487***		

* p<.05, ** p<.01, *** p<.001

【표 19】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 Test	
a	S_a	b	S_b	Test Statistics	p-value
-.299	.026	-.346	.052	5.759***	.000

* p<.05, ** p<.01, *** p<.001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여성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모의 일자리 포기 및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을 연구배경으로 한다.

취업모는 일반적으로 가사, 육아와 더불어 직장 업무까지 병행함에 따라 역할과중 또는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자녀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상황이 일상적으로 지속되면서 취업모는 만성적이거나 심화된 우울을 겪게 된다. 모의 우울은 부부관계 및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가족체계를 와해시키거나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된다. 즉 취업모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을 탐색하는 예방적 접근을 시도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돌봄에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 모의 우울을 경감하려는 실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만 1-3세의 유아는 신체기능의 향상 및 활동반경의 확대, 배변훈련과 언어습득의 시작으로 인해 양육자의 추가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정서적 발달 및 성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으므로 양육자의 양육지식과 애정이 필수적이다. 취업모는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리양육자원 또한 부족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의 취약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유아기의 자녀를 둔 취업모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만 1-3세의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각각 내적·외적 자원으로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대응방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전

체 취업모 중 모가 직접 조사에 응한 경우, 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모가 현재 재직 중인 경우를 선별하여 총 502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 중 최종적으로 415명이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취업모의 우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가설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도 지지되었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의 방향성을 해석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내적·외적 대처자원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모형에서도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째, 『연구가설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육스

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인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매개효과 또한 상실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또한 자아존중감에 의해 간접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사회적 지지의 간접적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지지되었으나 독립적·직접적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기각되어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채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연구결과 요약

『연구문제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양육스트레스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2』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내적 자원(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3』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외적 자원(사회적 지지)은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부분적 지지**

제 2 절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우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직업 관련 요인, 대리양육 관련 요인 등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본 연구가 근거를 두고 있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의하면, 우울은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만성적인 긴장과 갈등, 실패감 등으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Pearlin et al., 1981) 취업모는 직장업무와 육아, 가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으며(한국여성개발원, 2002), 특히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가 모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김혜성, 2001; 유우영 외, 1998) 지속적으로 긴장상태 속에 지내게 된다. 또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을 모두 성공적으로 소화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책감과 불안감, 실패감 등을 느끼게 된다(장미나, 한경혜, 2011). 특히 여성은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남성에 비해 크게 느끼기 때문에, 매일 겪게 되는 양육문제에서 높은 역할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이윤석, 2010).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취업모는 이처럼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됨으로써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함에 있어,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 대표적 스트레스 원(原)으로 꼽히는 역할갈등, 역할과중 등 역할긴장의 문제를 조작적으로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정확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넓은 관점으로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미례, 2006; 김은정 외, 1999b; 이선이, 1995)와 맥락을 같이하는 바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지현, 2005; 박해미, 1994; 이윤주, 2012; Danielle & Abigail, 2011; Gove & Hughes, 1979; Susan et al., 2001)와도 일치한다.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역할부담이나 역할갈등이 특히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적 정신건강상태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선아 외, 2006; 박성옥, 1993; 백경임, 강희경, 1995; 전영자, 1992)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으로 취업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우울을 방지하려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에 관심을 둠으로써 초기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및 부담이 큰 취약집단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취업모의 가족 관련 요인 중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우울은 낮아진다. 이는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와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김지현, 2005; Beach et al., 1985; Merikan-gas, 1984; Weissman et al., 1984)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외적 대처자원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취업모의 우울에 개입함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자주 느끼게 되어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아개념이 붕괴되고, 이로써 우울이 초래된다고 설명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Pearlin, 1989)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고정선(2008)은 발달장애 아동의 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김계필, 임경희(2012)은 사춘기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모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우울이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 곽소현, 김순옥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또 다른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을 우울과 가장 관계 깊은 요인으로 본 권정혜, 노은여(1997), 최미영(201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흡수하여 매개하였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중 일부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분석모형에 추가됨으로써 우울의 변량을 설명해주는 변수가 늘어나게 되어 모형의 적합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결과(김미례, 2006; 김영심, 2008; 김현순, 2014; 최미례, 이인혜, 2003; Culp & Beach, 1993; Lee et al., 2013; Pearlin et al., 1981; Simpson et al., 2010; Tram & Cole, 2000)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자긍심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이정윤, 장미경, 2008)와도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 이론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을 꾀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표 13】의 ②단계 모형)에서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 혹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결

혼만족도는 취업모의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직업만족도는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미칠 뿐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취업모의 외적 자원으로 고려한 사회적 지지도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원(原)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진다고 설명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과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또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변수 간 관계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숙(1990)은 자폐아동의 모가 장애아를 양육함에 따른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반면, 정상아동의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낮게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모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김교연(2009)은 지적 장애인의 모를 대상으로 장애자녀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지지가 모의 우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보금 등(1996)은 장애아동의 모를 대상으로 자기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자기지각에 비해 모의 우울을 설명하는 총효과가 더 컸다고 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를 설명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는 양육스

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한다고 밝힌 선행연구결과(김영주, 2009; 김윤정, 2000; 김정희, 1987; 심희옥, 1996; 윤현숙, 구본미, 2009; Ajrouch et al., 2008; Deno et al., 2012)를 뒷받침한다.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모의 부정적 정신건강을 초래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한 박애선(2013), 이숙자, 오수성(2006), Norbeck et al.(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여 우울에 이르지 않도록 개입함에 있어 사회적 자원 및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표 15】의 ②단계 모형)에서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의 양육참여, 가족형태, 직업만족도, 대리양육방식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논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범위를 가정 외부로부터의 지지로 구체화하였으며 가정 내의 지지는 측정에서 배제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 내부의 지지에 속하는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가정 외부의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모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가 아닌, 모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 취업모는 가정 외부의 지지 또한 높게 인식한다고 잠정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둘째, 가족형태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가족형태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핵가족을 (0), 확대가족을 (1)로 코딩하였기 때문에, 확대가족의 취업모가 핵가족의 취업모보다 사회적 지지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은만큼 모가 가정 외부에서 지지자원을 탐색하려는 경향이 확대가족의 모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친정부모나 시부모 등 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자원이 가족 외부에 존재한다. 반면 확대가족의 모는 동거하는 가족구성원이 많으므로 가족 외부보다는 내부의 지지에 더 의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확대가족의 모가 인지하는 가정 외부의 사회적 지지가 핵가족의 모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취업모가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가 직장이므로, 가정 외부의 사회적 지지를 설명함에 있어 직장 혹은 직업에서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리양육방식은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대리양육방식을 혈연관계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0)와 비혈연관계 대리양육자 또는 대리양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1)로 구분하였는데, 혈연관계 대리양육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취업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두 변수 각각의 개별모형 뿐 아니라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한 통합모형에서도 검증하였다. 양육스트레스가 취

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함께 매개변수로 투입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지되었으나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함으로써 매개효과가 사라졌다. 즉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를 통제하여도 매개효과를 가지지만,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통제하면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따라서 매개효과 또한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흡수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영자(1996)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Baumeister et al.(1998)은 사회적 소속감이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고 하였고, Brown, Andrew, Harris, Adler, and Bridger(1986)는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족 내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각각 내적·외적 차원의 대처자원으로서 병렬적 매개변수로 다루고 있을 뿐, 두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연구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근거를 탐색해보는 것이 학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하

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부록 3]의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aron and Kenny(1986)의 ①단계 조건을 성립하였고, 둘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②단계 조건도 충족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③단계 조건이 성립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어 ④단계 조건까지 성립하였다. 박용권(2012)에 의하면, 매개변수를 투입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면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통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부록 3]의 【표 3】에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매개되며, 이때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취업모를 위한 사회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지체계를 강화함에 있어 그러한 개입이 궁극적으로 취업모의 긍정적 자기인식 및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하였다. 스트레스 원(原)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스트레스 결과로 우울을 설정하였고, 매개요인으로 내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을, 외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대입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원(原)의 대표적 특징으로 만성적인 역할긴장을 꼽는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역시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역할부담 및 역할갈등에서 비롯되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축적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스트레스 원(原)의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내적·외적 대처자원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주요변수의 개념과 변수 간 관계를 고려하여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배경이론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취업모의 대처자원을 파악함으로써 취업모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연구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만 1세 이상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만 1-3세의 초기 유아기는 발달단계의 특성 상 양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됨과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도 높은 시기이다. 즉 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이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한편(안지영, 2000), 모가 그러한 부정적 요인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이미 역할과중 및 역할갈등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봄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하는 초기 유아기(Gross et al, 1994)에는 양육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1-3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초기 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의 정신건강적 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취약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 이론적 함의가 있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취업모의 대처자원을 내적·외적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김기원 외, 2010; 김이진, 2000; Belsky, 1984; Galinsky, 1992; Greenberger & O'Neal, 1990)는 대부분 양육스트레스의 요인(要因)을 파악하는 예방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양육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한 대처자원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그러한 소수의 연구들도 모의 대처자원을 단일한 차원에서 논하는 것에 그쳤다(박애선, 2013; 이숙자, 오수성, 2006; 이윤주, 2012; 이정윤, 장미경, 2008; Norbeck et al., 1981).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자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내적 차원에서는 자아존중감, 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모두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취업모의 대처자원을 조사하였으며 그러한 대처자원의 효과성을 내적·외적차원에서 입증함으로써 취

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전국 규모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의 양육스트레스 또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김지현, 2005; 박해미, 1994; 이윤주, 2012; 이정윤, 장미경, 2008)는 대부분 일(一) 지역 내의 보육·교육기관을 근거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의 모를 추적하여 소수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과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였으며,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실천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양육부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인 육아지원정책은 서비스 제공의 형태에 있어 주로 양육·보육수당, 아이사랑카드 등 현금 지급 및 바우처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본 연구는 취업모에 대한 지원범위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모의 정신건강 차원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취업모의 육아에 필요한 도구적·물질적 자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모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

울을 정확히 사정하고, 이를 경감 또는 예방하기 위해 개별적·집단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개입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취업모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폭을 넓히는데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취업모 중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1-3세의 초기 유아기에는 전인적 발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육자의 책임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김동배, 권중돈, 2010; 안지영,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과정과 그에 대한 대처자원을 살펴봄으로써 모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원조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기 유아기의 자녀는 이전과는 달리 신체활동의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고 언어적·인지적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며 자율성 및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는 관련 양육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육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유아기에는 자녀가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 신뢰를 쌓고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Erikson, 1959; 김동배, 권중돈, 2010에서 재인용) 취업모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모가 직장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마련하거나 육아휴직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한편 이처럼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초기 유아기의 자녀가 양질의 대리양육자원이나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 외에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즉 민간 어린이집의 신뢰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리양육자원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취업모의 내적 자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를 심리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아존중감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선행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영순, 안연경(2013)은 만 3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를 대상으로 STEP 부모교육프로그램[15]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모가 비교집단 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하였고, 자녀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또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조은미, 천성문, 이영순(2011)은 발달장애아동을 둔 모를 대상으로 지지적 집단상담[16]을 시행한 결과, 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이 모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조일현, 성승연(2011)은 다문화가정의 모를 대상으로 MBTI 부모교육프로그램[17]을 실시한 결과, 모

15) STEP 부모교육프로그램은 Dinkmeyer and McKay(1976; 오영순, 안연경, 2013에서 재인용)가 Adler의 개인심리이론을 부모교육에 적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관계 개선 뿐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부모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꾀한다.

16) 지지적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들이 공통의 문제나 생활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때 집단 내 상호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 등의 기법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한다(조은미 외, 2011).

17) MBTI 부모교육프로그램은 Jung의 분석심리이론에서 제시하는 성격유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성격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강점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조일현, 성승연, 2011).

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취업모 집단의 특성에 맞는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취업모의 외적 대처자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정 외부로부터 받는 지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14), 취업모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총 15개월의 휴직기간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취업모의 약 8%에 불과하며, 평균 휴직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MBC이브닝뉴스, 2014). 또한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제안되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10%가 채 되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따라서 기업의 육아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홍보 및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 밖에 지역사회에서도 취업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업모는 전업모에 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자녀의 성장·발달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이근영 외, 2004).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취업모 간에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의 형성을 원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하나의 모형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자아존중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내용별로 분류할 때, 도구적·정보적 지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정서적·사교적 지지를 포함시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각각의 매개효과 뿐 아니라 두 대처자원 간의 관계 또한 살펴봄으로써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있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요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당시의 상태를 묻는 반면, 종속변수인 취업모의 우울에 대해서는 '지난 30일 동안'의 상태를 물어, 측정된 변수들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수 간 영향력을 인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를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취업모의 내적·외적 대처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매개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로써 취업모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내용이나 방향이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존재하며,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主) 분석방법으로 사용된 다중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치밀한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다양한 매개변수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고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근거로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 원(原)으로 보는 견해(Pearlin et al., 1981)와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보는 견해(Pearlin & Schooler, 1978)가 양립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취업모의 대처자원으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내적·외적 대처자원으로서 양육스트레스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각각의 매개효과를 병렬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취업모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 영향만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고, 자아존중감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보다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earlin et al.(1981)의 견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보다는 스트레스 원(原)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 원(原)으로 가정하여 변수들 간 관계를 재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아동패널」자료는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함에 있어 김기현, 강희경(1997; 한국육아정책연구소, 2008에서 재인용)의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측정하는 부분은 질문지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불가피하게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양육스트레스의 조작적 개념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여러 하위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척도를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에 따라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를 가정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 내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에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정연, 2003; 박윤미, 2002; 차삼숙, 2005; 최자령, 1991)에 따라, 배우자의 지지를 내용별로 가사분담에의 지지, 자녀양육에의 지지, 취업모의 직업에 대한 지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변수 외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통제변수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자료에 관련 정보가 부재하거나 본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정보가 제시되어있을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취업모의 직업종류, 근무조건의 융통성, 대리양육 안정성 등의 요인은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및 그로 인한 다중역할부담과 역할갈등을 배경으로 하여 취업모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취업모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하는 전업모가 더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시달린다는 선행연구결과(Gore &

Mangione, 1983; Kessler & McRae, 1982)를 참고하여, 전업모와 취업모에 대한 비교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혹은 우울의 크기를 단순 비교한 연구(김리진, 1999; 김은정 외, 1999a; 김혜진, 2004; 박해미, 1994; 송지은 외, 2007; 조혜승, 1997)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별로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자원의 매개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정책을 차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미란 (2004). **맞벌이 부모의 자녀 대리양육 유형과 양육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희경, 조복희 (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고용노동부 (2011).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18.

고유빈, 하은혜 (2010). 어머니 우울증상과 자녀 우울증상의 상관과 어머니 표출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2), 63-80.

고은숙, 김명자 (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고정선 (2008).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부담감,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상호 관계: 정신지체와 자폐 아동 어머니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1-17.

공선영 (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소현, 김순옥 (2007). 기혼여성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우울, 불안: 초등학생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35-48.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미경, 김혜원, 김남선, 장정애 (2006). 영아기 어머니의 산후 우울 정도와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 스트레스, 영아기질에 관한 연구.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3), 314-321.

권정혜 (1996). 임신 중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33-43.

권정혜, 노은여 (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김경신, 김오남 (1994).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와 역할갈등. **生活科學硏究**, **4**, 15-28.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人間發達硏究**, **18**(4), 1-17.

김경희, 이복순 (2009). 어머니의 마음챙김과 정서안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3**(2), 333-362.

김계필, 임경희 (2012). 사춘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분노표현 및 자아존중감.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12**(10), 290.

김교연 (1994). **탁아서비스의 질이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교연 (2009). 지적 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돌봄 통제감 및 우울: 장애인 생애주기의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81-107.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동배, 권중돈 (2010).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김리진 (1999).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권 (1984). **생활사건과 우울 및 인지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김명자 (1990).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명자, 지혜선 (2000).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와 어머니역할만족도 분석. **生活科學硏究誌**, **15**, 25-56.

김미경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례 (2006). **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미현, 류점숙, 신효식 (1993).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111-125.

김민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28.

김선아, 남경아, 정향인 (2006).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2), 179-186.

김성범, 김진숙 (2011). 사관후보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2(6), 1915-1933.

김영심 (2008). **주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프로그램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 송연숙 (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김영주 (2009).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인복지硏究**, 46, 77-104.

김윤정 (2000). **사회적 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능취약노인의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숙 (1990).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에 대한 일 연구: 자폐아어머니와 정상아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a).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심리사회적 특성: 3개월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5-26.

_____ (1999b). 기혼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1-14.

김이진 (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선, 신경림 (2004).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

구. **대한간호학회지**, **34**(2), 352-361.

김정연 (2003). **수도권·신도지 지역의 주부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응방식의 우울에 대한 적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현 (2005). **미취학 자녀를 둔 주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순 (1993).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김혜성 (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투자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 (2004).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 (2011). **사무직 취업모의 직무 및 양육스트레스, 우울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진하 (2009). 뇌성마비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및 양생과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15**(2), 127-134.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박삼수 (2004).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옥 (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애선 (2013).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41**, 143-165.

박영숙, Kanzaki, M., 박연환, 김윤미 (2009). 3세 미만 유아를 둔 도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기능. **스트레스硏究**, **17**(4), 349-357.

박영주, 신현정, 유호신, 천숙희, 윤소현 (2004). 산후우울 예측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5), 722-728.

박용권 (2012). **(IBM SPSS Statistics 19.0 활용) 사회복지자료분석**. 서울: 신정.

박윤미 (2002).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해경 (1998). **도시주부의 가정 내 갈등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해미 (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편) (2012).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술술 잘 읽히는 첫아기 잘 키우는 법)**. 서울: 삼성출판사.

배경운 (2014). **미취학 아동의 대리양육 유형에 따른 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정이 (1996). **산후 우울의 이론적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경임, 강희경 (1995).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송금순 (1984). 일부 도시 생활인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해소와 관한 조사 연구. **춘천 간호보건전문대 논문집**, **14**, 79-90.

송대현 (1993). **심리학에서 본 자존심**. 서울: 성원사.

송지은, Nadine, F. M., 한경혜 (2007). 직업, 가족 및 일-가족 전이가 취업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의 비교. **가족과 문화**, **19**(2), 61-92.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의진 (2012).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 서울: 걷는나무.

신혜진 (2005).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희석 (2002). 생의 의미가 중년 부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5.

심현진 (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 내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에 관**

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희옥 (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아동학회지**, **16**(1), 89-98.

안선영 (1987). **취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갈등과 관련 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선자, 이정우 (1996).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85-200.

안옥심 (2004).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산욕기 산모의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재곤 (1982). **정신과 환자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에 관한 조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연정희 (2011). **보육시설 특성과 평가인증 실시 여부에 따른 보육교사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영순, 안연경 (2013).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7**(1), 77-96.

위경선 (1995). **주부의 우울양상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영선 (2012).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유정미 (2008). **산후 6개월 이내 산모의 산후 우울 정도와 예측 요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계준, 신승철, 정상배, 윤관수, 김만권, 문수재 (1991). 한국인의 우울에 관한 역학적 조사. **대한의학협회지**, **34**(2), 172-180.

윤석원, 서경미, 한재향, 곽순일, 김상필, 신상호 (1997). 서울 근교 한 중소도시 주부의 취업 유무에 따른 우울성향.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18**(4), 385-396.

윤지숙 (2002). **기혼취업여성의 이중역할부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현숙, 구본미 (2009).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2), 303-324.

이경혜 (2006). 기혼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스트레스와 대처. **간호과학**, 18(1), 30-37.

이광주 (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이근후 외 14명(역) (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서울: 하나의학사.

이선이 (1995). 가정주부와 취업주부의 생활사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2), 69-79.

이소란 (2000).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숙자, 오수성 (2006).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1), 27-45.

이숙정 (2011). **주부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안나, 신효식 (1991).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37-154.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석 (2010).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한국인구학**, 33(2), 1-31.

이윤주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인숙 (2002). 기혼여성의 우울과 배우자 지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482-493.

이정순 (2003).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83-199.

이정윤, 장미경 (2008).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부모역할 자긍심의 매개 및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9(2), 339-352.

_____ (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이주희, 이은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이한석 (2012).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 강상경 (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193-217.

임은경 (2009).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성격특성,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준구 (2012). 기관유형에 따른 만 2세미만 표준보육과정 운영실태 및 장애요인 인식.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3), 129-149.

장미나, 한경혜 (2011).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생활경험: 경험표집법(ESM)으로 살펴본 남녀의 일상시간 구성과 정서경험 비교. **가족과 문화**, 23(1), 1-39.

장병옥 (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겸구, 김교헌 (2003). 한국 주부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9.

전영자 (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해숙 (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55-77.

정문자 (1999).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11), 115-126.

정선영 (2003). **여성알코올중독자와 정상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선화 (2012). **중년여성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 김경은, 박연정 (2006).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人間發達硏究**, **13**(1), 35-60.

정지연 (2008).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 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조윤진 (2012). **기혼 취업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우울정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은미, 천성문, 이영순 (2011). 지지적 집단상담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8**(1), 49-71.

조일현, 성승연 (2011). MBTI를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1), 73-89.

조혜승(1997).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삼숙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희영, 옥경희 (2011). 영아 어머니 우울의 예측 변인 분석: 어머니의 부모됨 및 양육 관련 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2), 79-100.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2), 363-383.

최미영 (2011). **우울증 중년 여성의 위한 내성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보금, 홍상욱, 배옥현 (1996).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기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 **資源問題硏究**, **15**, 147-153.
최승순 (1987).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우울성향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자령 (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 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편은숙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오령, 권정혜 (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과 역할 만족도: 역할 갈등, 완벽주의 및 가족지지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675-696.
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C. D., & Marks, N. F. (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韓國老年學**, **22**(2), 209-225.
한국여성개발원 (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2002 연구보고서 230-4.
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보육프로그램 총론**. 서울: 한학문화.
한국육아정책연구소 (2008). **한국아동패널 2008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
_____ (2010). **한국아동패널 2010 데이터 사용 지침서**.
한순화 (2009). **표준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관심 및 활용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윤도준, 정근재 (1986).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정상집단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25**(3), 487-500.
허립 (2010). **위암 생존자의 우울에 관한 연구: 실존적 안녕(Existential well-being)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은경 (2004).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일상생활 스트레스,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혜원, 신정이 (2009).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45-71.
KBS 〈첨단보고 뇌과학〉 제작팀 (2012). **(KBS 특집 3부작 다큐멘터리 첨단보고 뇌과학, 10년의 기록) 태아성장보고서**. 서울: 마더북스.

[국외문헌]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Ajrouch, K. J., Reisine, S., Lim, S. W., Sohn, W. S., & Ismail, A. (2008). *Individual and neighbourhood stressors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wom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Aryee, S., Srinivas, E. S., & Tan, H. H. (2005). Rhythms of life: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balance in employed par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132-146.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umeister, R. F., Dori, G. A., & Hastings, S. (1998). Belongingness and temporal bracketing in personal accounts of changes in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2), 222-235.

Beach, S. R. H., Jouriles, E. N., & O'Leary, D. (1985). Extramarital sex: Impact on depression and commitment in couples seeking marital therap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1*(2), 99-108.

Beach, S. R. H., Sandeen, E. E., & O'Leary, K. D. (1990). *Depression in marriage*.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illings, A. G., Cronkite, R. C., & Moos, R. H. (1983). Social-environmental factors in unipolar depression: Comparisons of depressed patients and nondepressed contro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2), 119-133.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Schilling, E. A. (1989). Effects of daily stress on negative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808-818.

Brown, G. W., Andrew, B., Harris, T., Adler, Z., & Bridger, L. (1986).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16*(4), 813-831.

Chronister, J., Chou, C. C., & Liao, H. Y. (2013). The role of stigma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mediating the effect of societal stigma on internalized stigma, mental health recovery, and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5), 582-600.

Civic, D., & Holt, V. L. (2000). Maternal depression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normal birth weight sample.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4*(4), 215-221.

Cleary, P. D., & Mechanic, D. (1983).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arried people.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24*(2), 111-121.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of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Cole, D. A., & Tuner, J. E. (1993). Models of cognitive mediation and moderation in chil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2), 271-281.

Conrad, M., & Hammen, C. (1989). Role of maternal depression in perceptions of child mal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5), 663-667.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

Crnic, K. L.,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Culp, L. N., & Beach, S. R. H. (1993).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s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aper presented at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Danielle, N. S., & Abigail, J. S. (2011). Parenting stress, perceived child regard,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stepmothers and biological mothers. *Family Relations*, *60*(5), 533-544.

Dearing, E., Taylor, B. A., & McCartney, K. (2004). Implications of family income dynamics for women's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first 3 years after childbir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8), 1372-1377.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86-495.

Deno, M., Tashiro, M., Miyashita, M., Asakage, T., Takahashi, K., Saito, K., Busujima, Y., Mori, Y., Saito, H., & Ichikawa, Y.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ress and emotional distress in head and neck cancer outpatients with facial disfigurement. *Psycho-Oncology*, *21*(2), 144-152.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Farmer, A. Y., & Lee, S. K.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perceived mastery, and maternal depression on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5), 516-525.

Galinsky, E. (1992). The impact of child care on parents. In Booth, A. (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s (pp. 159-171).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Garber, J., & Seligman, M. E. P. (Ed.). (1980).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Gordon, D., Burge, D., Hammen, C. L., Adrian, C., Jaenicke, C., & Hiroto, D. (1989). Observations of interactions of depressed women with thei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1),

50-55.

Gore, S. L., & Mangione, T. (1983).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ddic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24*(4), 300-312.

Gotlib, I. H., Kurtzman, H. S., & Blehar, M. (1997). *The cognitive psychology of depression*. UK: Psychology Press.

Goudy, W. J., & Lorens, F. O. (1989).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marital relations on depression among Mex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1*(1), 239-251.

Gove, W. R., & Hughes, H. (1979). Possible causes of apparent sex differences in physical heal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Social Review*, *44*(1), 126-146.

Greenberger, E., & O'Neil, R. (1990). Parents' concerns about their child'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athers' and mothers'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work.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2*(3), 621-635.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3), 207-215.

Gross, D., Rocissano, L., & Roncoli, M. (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1), 1-9.

Holahan, C. K., Holahan, C. J., & Belk., S. S. (1984). Adjustment in aging: The roles of life stress, hassles, and self-efficacy. *Health Psychology*, *3*(4), 315-328.

Horwitz, S., Briggs-Gowan, M., Storfer-Isser, A., & Carter, A. (2007). Prevalence, correlates, and persistence of maternal depression. *Journal of Women's Health*, *16*(5), 678-691.

Kessler, R. C., Andrews,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Kessler, R. C., & McRae, J. A. (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216-227.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e, J. S., Joo, E. J., & Choi, K. S. (2013). Perceived stress and self-esteem mediate the effects of work-related stress on depression. *Stress & Heal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tress*, *29*(1), 75-81.

Lewinsohn, P. M., Hoberman, H., & Rosenbaum, M. (1988). A prospective study of risk factor for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251-264.

Lloyd, C. (1980). Life events and depressive disorder reviewed Ⅱ: Events as precipitating facto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5), 541-548.

Mangen, D. J., & Peterson, W. A. (Ed.). (1982).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anuel, J. I., Martinson, M. L., Bledsoe-Mansori, S. E., & Bellamy, J. L. (2012). The influence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with young children. *Social Science & Medicine*, *75*(11), 2013-2020.

McLanahan, S., & Adams, J.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237-257.

Merikangas, K. R. (1984). Divorce and assortative mating among depressed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1), 74-76.

Moksnes, U. K., Moljord, I. E. O., Espnes, G. A., & Byrne, D. G.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emotional states in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and self-esteem.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49*(5), 430-435.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05-422.

Norbeck, J. S., Linsey, A. M., & Carrieri, V. L.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5), 264-269.

Northcutt, H. C. (1980). Women, work and health.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3*(4), 393-404.

Oscar, B. M. (1982). Religion and community-oriented attitud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1*(1), 48-58.

Paykel, E. S., Emms, E. M., Fletcher, J., & Rassaby, E. S. (1980).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in puerperal depress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6*, 339-346.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3), 241-256.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Ravicz, S. (1998). *High on stress: A woman's guide to optimizing the stress in her life*.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Rubin, L. (1983). *Intimate stranger: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Scott, D. (1992). Early identification of maternal depression as a strategy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hild Abuse & Neglect*, *16*(3), 345-358.

Sheppard, M. (1997). Double jeopardy: The link between child abuse and maternal depression in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Child &*

Family Social Work, *2*(2), 91-107.

Shin, H. S., & Kim, J. M. (2010).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maternal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3), 453-461.

Simpson, J., Hillman, R., Crawford, T., & Overton, P. G. (2010). Self-esteem and self-disgust both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cogni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Motivation & Emotion*, *34*(4), 399-406.

Susan, R., Richard, C. S., Philip, T., & Ina, A. (2001). Th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strains, and depression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others. *Sociological Forum*, *16*(1), 55-72.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or or moder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4), 753-760.

Tran, T. V., Whight, J. R., & Chatters, L. (1991). Health, stress, psychological resourc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blacks. *Psychology and Aging*, *6*(1), 100-108.

Warr, P., & Parry, G. (1982). Paid employment and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1*(3), 498-516.

Weissman, M. M., Leaf, P. J., Holzer III, C. E., Tischler, G. L., & Myers, J. K. (1984).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An update on sex differences in rat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3-4), 179-188.

Weitlauf, A. S., Vehorn, A. C., Taylor, J. L., & Warren, Z. E. (2014).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Autis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Practice*, *18*(2), 194-8.

[인터넷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뉴스 (2013. 12. 11). “입소 대기순번 551번입니다” 대체 무슨 줄이길래… 아이돌봄 서비스·어린이집 ‘대기 수백번대’… 맞벌이 부부 원성.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010240947585&outlink=1

베이비뉴스 (2011. 7. 5). 국공립어린이집, 인기 있는 이유 있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1&NewsCode=201107041206031796256922

보건복지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 www.kosis.kr

_____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 및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www.kosis.kr

_____ (2014). 보육정책.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4mn.jsp?PAR_MENU_ID=06&MENU_ID=06140301

서울경제 (2013. 10. 25). 정부, 아이돌보미 월평균 888가구 대기.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10/e20131025072915117920.htm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제3차 표준보육과정 고시.
http://seoul.childcare.go.kr/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아동 연령별 및 부부취업상태별 이용시설. www.kosis.kr

_____ (2014. 4. 16에 검색). 가족친화 환경조성.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6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통계청 (2011a).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2676

_____ (2011b).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www.kdi.re.kr/infor/ep_view.jsp?num=114479

_____ (2011c). 사회조사: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주된 응답, 13세 이상

인구). www.kosis.kr
_____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www.kosis.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여성가족패널조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인식_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줌(연령 · 교육정도별). www.kosis.kr
MBC이브닝뉴스 (2014. 1. 21). 쓰지 못하는 '육아휴직', 무늬만 법적 권리? …활용 방안은?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404542_13479.html

[부록 1] 설문지

1.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다음은 ○○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진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다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종속변수: 우울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_____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1) 자아존중감

다음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지지

다음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상 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4. 통제변수

1) 모의 연령, 학력, 가족형태, 자녀수

지난 조사에서 ○○ 가족의 가구원은 다음과 같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래의 가구원 외에 혼인, 출산, 입양, 합가 등의 이유로 새로 들어온 가구원이나 혼인, 이혼, 경제적 독립으로 분가하거나 사망한 가구원이 있습니까? 아래의 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8]

문항	○○와의 관계	생년월일	양/음력	최종학력
보기	① 부모 ② 형/오빠 · 누나/언니 ③ 동생 ④ 친조부 · 친조모 ⑤ 외조부 · 외조모 ⑥ 형제자매의 배우자 ⑦ 형제자매의 자녀 ⑧ 고모 · 삼촌 ⑨ 고모부 · 숙모 ⑩ 고종사촌 · 친사촌 ⑪ 이모 · 외삼촌	예) 19750211	① 양력 ② 음력	① 미취학-기관 미이용 ② 미취학-보육시설 이용 ③ 미취학-유치원 이용 ④ 미취학-학원 등의 기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주3회 반일제 이상) ⑤ 무학 ⑥ 초등학교 ⑦ 중학교 ⑧ 고등학교 ⑨ 전문대(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⑩ 대학교(4년제 이상)

18) 원 질문지에 제시된 표의 구성항목 중 본 연구의 주요변수와 관련된 항목만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⑫ 이모부 · 외숙모 ⑬ 이종사촌 · 외사촌 ⑭ 기타 _____			⑪ 대학원 석사 ⑫ 대학원 박사 ⑨⑨ 모름
응답자				
가구원1				
가구원2				
:				

2) 소득수준

1.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2. (무응답인 경우) 그럼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200만원 ③ 201만원 - 300만원
④ 301만원 - 400만원 ⑤ 401만원 - 500만원 ⑥ 501만원 - 700만원
⑦ 701만원 - 800만원 ⑧ 801만원 - 900만원 ⑨ 901만원 - 1,000만원
⑩ 1,000만원 이상

3) 결혼상태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4) 종교유무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결혼만족도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배우자의 양육참여

다음은 ○○의 양육 시 남편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양육시간

귀하는 ○○을 돌보는 데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주중: 총 _____시간 _____분　　주말: 총 _____시간 _____분

8) 근무시간

귀하는 평소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근무하십니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응답해주십시오. 단, 업무시간에는 업무성 회식 등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주중: 총 _____시간 _____분

9) 직업만족도

귀하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10) 대리양육방식

1. 이달 현재 낮 시간(오전 8시 - 오후 8시)동안 대리양육을 목적으로 ○○을 주로 돌보는 사람(혹은 기관)은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개인대리양육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 이상 학원 ④ 선교원 등 기타 기관

2. (①번으로 대답한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낮 시간 동안 ○○을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① 친할머니 ② 친할아버지
③ 외할머니 ④ 외할아버지
⑤ 기타 친인척 (아동과의 관계: _____)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비혈연 도우미
⑦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⑧ 기타 (_____)

11) 대리양육만족도

1. 지금 ○○을 돌보는 대리양육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2. 지금 이용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부록 2] K6 각 문항의 측정내용 및 기존 우울 척도와의 비교

K6는 미국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적인 심리적 디스트레스(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K10의 10문항 중 6문항을 선별하여 간편형으로 제작한 도구이다. 따라서 K6는 우울 뿐 아니라 불안, 피로, 무가치감, 죄책감, 정신운동성 초조 혹은 지체 등 다양한 디스트레스의 증상을 측정한다. 그러나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는 K6를 우울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K6의 측정결과를 취업모의 우울 수준으로 취급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다음의 【표 1】에서는 K6의 각 문항이 측정하는 디스트레스의 하위 개념을 살펴보고,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대표적 우울 척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비교대상으로 삼은 우울 척도는 Zung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Beck Depression Inventory-Ⅱ(BDI-Ⅱ),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등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K6가 우울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표 1】 K6 각 문항의 측정내용 및 기존 우울 척도와의 비교[21]

1)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K6 원 문항[19]		During the last 30 days, about how often did you feel nervous?
측정내용[20]		Anxiety
기존 우울 척도의 관련 문항	SDS	15) I am more irritable than usual.
	CES-D	1) I was bothered by things that usually don't bother me.
	BDI-Ⅱ	17) Irritability ⓪ I am no more irritable than usual. ① I am more irritable than usual. ② I am much more irritable than usual. ③ I am irritable all the time.
2)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K6 원 문항		During the last 30 days, about how often did you feel hopeless?
측정내용		Depressed mood
기존 우울 척도의 관련 문항	SDS	14) I feel hopeful about the future.
	CES-D	8) I felt hopeful about the future.
	BDI-Ⅱ	2) Pessimism ⓪ I am not discouraged about my future.

		① I feel more discouraged about my future than I used to be. ② I do not expect things to work out for me. ③ I feel my future is hopeless and will only get worse.
3)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K6 원 문항		During the last 30 days, about how often did you feel restless or fidgety?
측정내용		Motor agitation
기존 우울 척도의 관련 문항	SDS	13) I am restless and can't keep still.
	CES-D	11) My sleep was restless.
	BDI-Ⅱ	11) Agitation ⓪ I am no more restless or wound up than usual. ① I feel more restless or wound up than usual. ② I am so restless or agitated that it's hard to stay still. ③ I am so restless or agitated that I have to keep moving or doing something.
4)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K6 원 문항		During the last 30 days, about how often did you feel that everything was an effort?
측정내용		Fatigue
기존 우울 척도의 관련 문항	SDS	12) I find it easy to do the things I used to.
	CES-D	7) I felt that everything I did was an effort.

	BDI-Ⅱ	20) Tired or Fatigue ⓪ I am no more tired or fatigued than usual. ① I get more tired or fatigued more easily than usual. ② I am too tired or fatigued to do a lot of the things I used to do. ③ I am too tired or fatigued to do most of the things I used to do.
5)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K6 원 문항		During the last 30 days, about how often did you feel so depressed that nothing could cheer you up?
측정내용		Depressed mood
기존 우울 척도의 관련 문항	SDS	1) I feel down-hearted and blue. 20) I still enjoy the things I used to do.
	CES-D	6) I felt depressed. 18) I felt sad.
	BDI-Ⅱ	1) Sadness ⓪ I do not feel sad. ① I feel sad much of the time. ② I am sad all the time. ③ I am so sad or unhappy that I can't stand it. 4) Loss of Pleasure ⓪ I get as much pleasure as I ever did from the things I enjoy.

		① I don't enjoy things as much as I used to. ② I get very little pleasure from the things I used to enjoy. ③ I can't get any pleasure from the things I used to enjoy.
6)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K6 원 문항		During the last 30 days, about how often did you feel worthless?
측정내용		Worthless guilt
기존 우울 척도의 관련 문항	SDS	17) I feel that I am useful and needed.
	CES-D	4) I felt that I was just as good as other people.
	BDI-Ⅱ	14) Worthlessness ⓪ I do not feel I am worthless. ① I don't consider myself as worthwhile and useful as I used to. ② I feel more worthless as compared to other people. ③ I feel utterly worthless.

19) K10과 K6를 개발한 Kessler et al.(2002)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20) K10과 K6를 개발한 Kessler et al.(2002)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21) 표에서 반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척도의 문항번호를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부록 3]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표 2】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22)]

	①단계			②단계			③, ④단계		
	사회적 지지 ⇨ 우울			사회적 지지 ⇨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 우울		
	B	S.E	β	B	S.E	β	B	S.E	β
사회적 지지	-.095	.025	-.186***	.166	.024	.318***	-.021	.024	-.041
자아존중감	-	-	-	-	-	-	-.458	.047	-.465***
R^2	.178			.260			.341		
Adjusted R^2	.147			.232			.314		
R^2 변화량	-			-			.163***		
F	5.719***			9.274***			12.749***		

* p<.05, ** p<.01, *** p<.001

22)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등 주요변수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였고, 통제변수 및 상수 관련 사항은 생략하였다.

【표 3】 사회적 지지와 취업모의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Sobel Test	
a	S_a	b	S_b	Test Statistics	p-value
.166	.024	-.458	.047	-5.640***	.000

* p<.05, ** p<.01, *** p<.001

Abstract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Depression of Working Moth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Sun Ah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working mothers' depression based on the Stress Process Theory,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the internal · external coping resources. This study reflects the reality that the career interruption and the avoidance of pregnancy of working mothers are becoming the prevalent phenomena due to lack of institutional and conscious supports on their child rearing responsibilities despite the rate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and the rates of dual income families drawing nearly 50% each.

On the other hand, the toddlerhood between the ages of 1-3 is when the holistic human development occurs dynamically and rapidly, which the high qualifications and the successful role performance of the rearer are required, and also when the parental

stress increas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the effects of the coping resources in the process of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use it as the basis for th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research questions which were, first, 'does parental stress influence depression of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second, 'does the internal resource(self-esteem) of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mediate the effect of parental stress on depression?', and third, 'does the external resource(social support) of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mediate the effect of parental stress on depression?'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3rd year data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502 working mothers were selected as the study objects and the final 415 were put into the regression model to examine hypotheses. For th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was mainly used, and 4 steps of Baron and Kenny(1986) were examined and Sobel Test was performed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al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Second, self-esteem display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depression. As parental stress increased, self-esteem decreased, and as self-esteem decreased, depression increased. Third, social support also display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As parental stress increased, social support decreased, and as social support decreased, depression increased. However,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ly indirectly existed through self-esteem, and self-esteem fully mediat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This study carries theore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working mothers'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Stress Process Theory. Second, it encouraged the academic interest on the mental factors of mothers which can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toddlerhood, and leaves the door open for the follow-up studies on the disadvantaged group that has not drawn attention in advanced researches. Third, it explored the working mothers' coping resources against parental stress on internal and external levels. Lastly, it reinforced the possibility of generalizing the study results by using the nationwide data.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by verifying the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the working mothers' depression, it demanded the social concerns on working mothers'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mental health, and emphasized that support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should includ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aspects. Second, it reported the need for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oddlerhood and related parenting knowledge. Third, it expanded the welfare intervention areas by study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oping resources on parental stress. Lastly, by determining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directly presents through self-esteem, it emphasized that the enhancement of self-esteem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offering policies which

improve social support of working mothers.

Keywords : working mothers, parental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medi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09-20161